

# 安東 廣興寺 간행 불서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f Buddhist Literature Published at  
Gwangheung Temple in Kyungsang Provinces

임 기 영 (Lim, Kee-Young)\*

## ◁ 목 차 ▷

1. 머리말	4. 간행 불서의 분석
2. 광흥사의 연혁 및 서적 간행	4.1 간행 동기
2.1 연혁과 역사	4.2 간행 시기
2.2 조선시대 사찰의 위상 및 서적 간행	4.3 주제별 분포
3. 간행 불서의 현황	4.4 판의 형식
3.1 간행 현황	4.5 간행 참여자
3.2 전존본의 특징	5. 맺음말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손꼽히는 광흥사에서 간행된 불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광흥사의 불경 출판 활동은 주로 16세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즉, 기록상 사찰에서 간행되었거나 전존하는 판본이 남아 전하는 불서는 모두 23종이었다. 이 가운데 21종이 16세기에 간행되었고, 국내 여러 기관에 현재까지 인본이 남아있는 경전은 14종으로 조사되었다. 경전의 권말 기록에 따르면, 14종의 인본 가운데 9종은 임금이나 왕비 및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제외한 일부 판본은 사찰 신도나 시주자들의 소원 성취를 위한 판각 또는 佛徒 및 佛學者들의 학습을 위한 개관 사업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사찰에서 간행된 경전의 주제는 불교 의식서로 대변되는 禮懺類 서적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禪宗類와 『金剛經』, 『法華經』 등 일반 경전류들이 판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본의 간행 관련 기록의 분석을 통하여, 승려와 일반인들이 刻手, 化主, 鍊板者, 供養主 등 다양한 역할로 여러 경전의 간행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등 사찰의 간경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던 정황을 알 수 있었다.

要語: 廣興寺, 寺刹版, 安東, 佛書, 佛經, 佛說阿彌陀經, 儒家文集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impussiant@knu.ac.kr)

접수일: 2013년 9월 5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engraved in Kwangheung temple which was considered representative temple at Andong area of Kyungsang provinces. According to the research, publishing of Buddhist scriptures in the temple was mainly carried in 16th century. Meanwhile, there were 23 kinds of Buddhist scriptures which included existing books and remained in historical records as well. Among the number of 23 kinds, existing books in various institutions of the country were 14 kinds. The records in the Buddhist scriptures show that 14 to 9 kinds were engraved from a motive of peace toward King and royal family. For the rest, some kinds were published from their making a wish of temple members or some were the outcome from learning purpose of Buddhist scholar. And then in subjective distributions of the scriptures, Zen meditation(禮懺) part was the most favorable area followed by the Zen sect(禪宗) and common scriptures so forth. Moreover analysis of the records in the end of a volume show that there was an positive role and participation in the publishing of the temple whose position were ranked engraver, manager, woodcutter, cooking part and such like.

Key words: Kwangheung Temple(廣興寺), Woodblock printing of Buddhist temple, Andong, Buddhist scriptures, *Commentary on the Amitābha Sutra*, Anthology of Confucian

## 1. 머리말

안동 지역의 전통 사찰은 광흥사를 비롯하여 鳳停寺, 鳳棲寺, 玉山寺 등 20여 개가 알려져 있다. 또한 근대에 지어진 사찰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남아 있는 사찰의 수도 44개소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는 유학의 본고장으로 일찍부터 향교와 서원이 건립되는 등 유교 문화가 번성하였던 안동 지방이, 유교 못지않게 불교 문화 또한 융성하였던 지역이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지역의 전통 사찰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사찰 자체적인 출판 활동이 면면히 이루어졌다. 또한 인근 사찰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기도 하였고, 이들의 협업으로 불경을 간행하였던 정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중 광흥사는 안동의 佛宇를 대표하는 명찰로, 사찰의 전통이나 세력 면에서도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巨刹이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여러 차례의 화재와 소실, 그에 따른 중수의 과정이 반복되었고, 20세기 들어 1948년 4월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大雄殿을 비롯한 경내 대부분의 건물들이 소실되는 등 악재를 겪었다. 1948년의 화재로 말미암아 주변의 나머지 건물들까지도 연이어 퇴락하는 등 이후 사세 및 사찰의 규모는 현격하게 축소되었다. 결국 현재 사찰의 모습은 應眞殿과 冥府殿, 山靈閣 등 좁은 부지에 소박한 규모로 몇몇 건물만 남아 전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과거 안동 지역을 대표하였던 광흥사의 출판 활동을 소급하여 살펴 보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관찬 사료를 비롯하여 事蹟이나 碑文이나 重修記, 문집 등 관련 기록을 통해 사찰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전 판본 및 이들에 나타난 기록을 토대로 인쇄와 출판이라는 관점에서 당시 광흥사의 불서 간행 면모를 되짚어 보았다.

한편, 광흥사와 사찰의 출판 활동에 대하여 남권희<sup>1)</sup>는 경상도 지역의 불서

1)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敎 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 (1999. 2), 351-456.

전반을 다루면서, 그 윤곽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金相溟<sup>2)</sup>에 의하여 조선 시대 사찰판 각수들이 조사될 때, 광흥사판 불경 일부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 2. 광흥사의 연혁 및 서적 간행

### 2.1 연혁과 역사

#### 2.1.1 신라 및 고려시대

안동 鶴駕山의 명찰로 손꼽히는 광흥사의 역사를 소급하여 살펴보고자 할 때, 초창기 사찰의 창건에 관한 문헌적인 근거가 되는 관련 사료 및 기록은 거의 전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찰의 초창기 기록은 구체적인 사료를 남기지 않은 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에서 비슷한 형편이다.

여느 사찰과 마찬가지로 광흥사 또한 正史의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17-18세기 작성된 몇몇 사찰 소장 문서 및 순조 28년(1828) 작성된 『廣興寺重建事蹟』에서 막연한 맥락으로 사찰의 연원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대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다거나, 통상적인 문구로 신라 고찰이나 천년의 고찰 또는 신라 의상 창건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나, 사찰의 건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라 神文王(재위 681-692) 때 왕성한 활동을 하였던 義湘大師(625-702)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는 인근의 鳳停寺도 같은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흥사는 가까운 鳳停寺나 영주 浮石寺 등과 같이 개창 초기에는 화엄종이 흥성하였을 것이고, 고려시대에는 知訥의 영향을 받은 曹溪宗의 참선 도량으로 존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측은 사찰이 위치한 鶴駕山<sup>3)</sup> 일대에서 일찍부터 義湘이 활동한 기

2)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3) 당시 명칭은 下柯山임.

록<sup>4)</sup>이 보이고, 고려시대에도 廣興寺가 지목되지는 않았으나, 인근 下柯山 普門寺 등지에서 『華嚴經』을 열람한 지눌의 행적<sup>5)</sup>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찰에 관한 접근 가능한 사료를 수합하여 보면, 먼저 사찰 명칭에 관한 正史 기록<sup>6)</sup>으로, 태조 2년(919)에 왕의 주도로 廣興寺, 現聖寺, 彌勒寺, 四天王寺 등을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는 태조가 開京을 중심으로 사원을 세워, 중앙 중심의 불교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일환<sup>7)</sup>으로, 당시 開京에 건립된 廣興寺를 지칭하는 것이다.

한편, 權相老는 광흥사에 대해 『韓國寺刹全書』에서 ‘경상북도 安東 西後面者品里 鶴駕山)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孤雲寺의 말사이다. 신라 문무왕 때 義湘이 창건하였으며, 그 뒤 여러 차례의 중건과 중수를 거쳐 대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고려시대 금석문이나 이 시기 활약한 여러 승려들의 기록 및 관련 사료에서도 廣興寺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이는 사료의 부족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 당시까지는 사찰의 면모가 융성하지 않았거나 대찰로서의 사세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또한 간행물은 아닐지라도, 광흥사에는 고려 공양왕 원년(1382)에 작성된 백지묵서의 『妙法蓮華經』 제3권<sup>8)</sup>과 ‘施主 權圖南’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감지금니 『妙法蓮華經』 권3-4가 사찰 소유로 내려오다가 국립경주박물관에 이전되기도 하였다. 이 2종의 사경은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 寫成處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후자인 감지금니 『妙法蓮華經』 권3에는 ‘施主 權圖南’이라는 발원 기록<sup>9)</sup>이 남아

4) 『三國遺事』 권제4 <義解弟五> <義湘傳教>. “... 有傳眞嘗處下柯山鶻品寺每夜伸臂點浮石室燈通著錐洞記 ...”

5) 李智冠 編著,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 高麗篇4』 (서울: 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6), 65.

6) 『高麗史』 제2권 <世家> 제2 태조 2(936) 丙申條.

7)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서울: 一潮閣, 1997), 307.

8) 권희경 지음, 『고려의 사경』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6), 104.

9) 시주자 權圖南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2003년 宋成文씨의 소장하고 있던 전적류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기증되면서, 이 사경과 동일한 양식의 감지금니 『妙法蓮華經』 권제7이 알려지게 되었다. 기증된 사경의 권말에는 ‘... / 至正二十六年丙午九月日 鳳停晉鎮 / 施主 都評議錄事典農直長權圖南 / 備巡衛精勇別將權 仁達 / ...’라는 발원문이 수록되

있다. 이 기록은 비교적 최근에 기증이 이루어진 宋成文 선생 舊藏 『妙法蓮華經』 권제7과 발원자가 일치하고 있다. 이에 발원자는 安東都護府 鳳停晉鎮의 ‘權圖南’으로 여겨지고, 더불어 이 사경의 사성처는 넓게는 안동 지역의 사찰, 좁게는 광흥사 또는 봉정사에서 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2.1.2 조선시대

조선시대 광흥사의 연혁에서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다. 이는 곧 사찰이 위치한 山名이 고려시대 이후 下柯山으로 불리다, 16세기를 기점으로 鶴駕山으로 변경되었던 사실이다. 사찰이 위치한 鶴駕山은 학이 앉았다 날아가는 형상과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설에는 鶴佳山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전한다.

현시점에서 산명이 바뀐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안동 下柯山 普門寺에서 『華嚴經』을 열람한 지눌의 행적<sup>10)</sup>과 선조 6년(1573)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광흥사 銅鐘<sup>11)</sup>에도 동일한 명칭인 下柯山이 사용되었던 사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중종 25년(1530)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이미 ‘鶴駕山’과 ‘下柯山’이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었던 정황<sup>12)</sup>을 밝히고 있으므로, 16세기까지는 두 명칭이 병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까지 드러나는 ‘鶴駕山’의 명칭을 사용한 이른 사례는 중종 39년(1544) 편찬되었던 『竹溪志』 <豊基移建學校記>의 내용<sup>13)</sup>과 『退溪集』에서 이황이 명종 21년(1566)에 鶴駕山으로 들어갔다<sup>14)</sup>는 기록 등이 나타난다. 그 뒤로 17세기 이후의 문집이나 실록, 碑

---

었고, 사경의 양식이나 安東都護府 鳳停晉鎮의 인물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동일인물로 여겨진다. 따라서 광흥사 舊藏 사경의 사성 시기도 고려 공민왕 15년(1366)을 전후한 시기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주자인 權圖南은 안동 도호부의 관리였던 동시에 廣興寺 또는 鳳停寺의 신도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10) 李智冠 編著,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 高麗篇4』 (서울: 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6), 65.
- 11) 秦弘燮, “廣興寺銅鐘,” 『고고미술』 제7권 제11호(1966. 11), 251.
- 1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제24 경상도 <安東大都護府>條.
- 13) 『竹溪志』 권5 <雜錄後> <豊基移建學校記>. “卜地于郡城之北三里負小白面鶴駕兜率在右錦川在左 ….”
- 14) 『退溪集』 권26 <書>의 <答鄭子中>. “昨借得私人馬來入鶴駕山廣興寺爲三辭之計 ….”

銘<sup>15)</sup> 등 관련 문헌 및 사료에서는 더 이상 ‘下柯山’으로 기록된 例는 찾기 어렵다.

한편, 조선시대 광흥사의 여러 이력 및 사찰의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15세기 세조조를 기점으로 그 세력이 확장되고, 전체적으로 융성하였던 사찰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는 불교에 대한 중앙의 정책과 그 흐름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자연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사찰의 고양된 분위기는 16세기 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사찰은 16세기 말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여기에는 승유억불이라는 큰 흐름이 전제되어 있었으나, 이 또한 당대의 집권 임금에 따른 기복이 없지 않았다.

이 시기 광흥사의 융성하였던 정황은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는 바, 그 시작은 세종조에서 비롯되었다. 세종 연간(재위 1419-1450)에는 필사된 金字 법화경 1본과 어첩 1본을 廣興寺 立願堂에 보관<sup>16)</sup>하였다. 연이어 호불 군주였던 세조는 尹師路 등 19인에게 法華, 般若, 志磐文 등 여러 경전을 간행하여 광흥사에 奉安<sup>17)</sup>케 하기도 하였다. 이 기록은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세조의 집권 중반기 간경도감이 설치되어 활발한 불서 간행 사업이 이루어졌던 시점으로 보여진다. 이에 추정을 좀 더 구체화하자면, 尹師路(1423-1463)의 말년이자 그가 간경도감 提調를 맡았던 세조 7년(1461)에서 그가 사망한 세조 9년(1463) 사이의 있었던 일로 여겨진다.

또한 사찰의 흥성한 분위기는 당시 간행된 불서의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현존하는 불서 대부분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서적의 간행 빈도와 사찰의 전체 분위기를 직결시키는 것은, 한편으로는 논리적 비약이나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한 재력과 물력, 인력이 동원되는 불서의 간행 사업이 사찰의 안정된 기반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寺勢와 서적의 간행 빈도를 연관짓는 것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 밖에도

15) 예컨대, 숙종 36년(1710) 건립된 金尙憲의 비석인 <淸陰金先生木石居遺墟碑>에도 鶴駕山이라는 명칭이 사용(안동시립민속박물관 편, 『안동의 비석』 (안동: 同박물관, 1995), 264).

16) 『廣興寺重建事蹟』 <重修記> 제13장 뒷면 제12행. “世 / 宗朝手寫金字法華經一本御帖一本 / 鎮沙門遂立願堂 ….”

17) 『廣興寺重建事蹟』 <重修記> 제14장 앞면 제2행. “世祖大王命臣尹師 / 路等十九人刊法華般若志磐諸經以爲 / 藏亦我 ….”

당시 간행되었던 서적의 권말에 기록된 참여 인력의 규모면에서도 한층 제고된 사찰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 16세기 후반 사찰에서는 고려 양식을 충분히 반영한 銅鐘까지 제작<sup>18)</sup>되었고, 사찰에서 사용되었던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광흥사에는 四溟堂 惟政(1544-1610), 청허당 休靜(1520-1604) 등 조선 중기 활동한 고승을 비롯하여, 碧坡 海運이나 南月堂 惠昨 등 조선 후기의 선사 및 대선사의 진영 14점이 고스란히 잘 보관되어 있다. 다만, 이들의 이력에서 광흥사와의 직접적인 인연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광흥사를 거쳐 갔거나 사찰과 관련이 있었던 인물들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17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숙종 9년(1683) 창건된 안동부 首陽寺에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사찰 소속 암자의 화재 사실을 밝히고 있다. 광흥사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應眞殿과 冥府殿 및 임금의 御製, 御帖을 보관하였던 書畫閣, 凝香閣 등 여러 전각이 있었다. 또한 사찰 인근에는 몇몇 암자들이 있었던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 중 암자의 명칭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숙종 31년(1705) 乙酉 11월에 사찰 소속의 산내암자가 홀연히 소진되기도 하였다. 이에 사찰에서는 이듬해(1706) 4월 인근 首陽寺에서 목재를 구하고, 승려와 일반인 300여 명이 이를 운반하여 중창의 불사를 시작한 정황을 기록<sup>19)</sup>하고 있다. 당시 중건에 동원된 인물은 광흥사의 宗師와 禪德 23명, 산내암자의 승려 3명, 三綱, 冶匠, 供養主, 別座, 都監 등 139명에 달한다. 더욱이 이 암자는 우여곡절 끝에 영조 3년(1727)에 중창이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중창 불사가 지연되면서 棟梁이 기울고, 기와에도 말썽이 생겨 재차 보수 및 복원이 이루어졌다. 결국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중수의 마무리 시점은 정조 18년(1794)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었으니, 장구한 기간의 중창 佛事였음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리고 野雲 時聖(1710-1776)의 문집에 따르면, 영조 23년(1747) 5월에는 靈

18) 秦弘燮, “廣興寺銅鐘,” 『고고미술』 제7권 제11호(1966. 11), 251.

19) 광흥사 소장 상량문. “康熙四十四年乙酉十一月此菴忽然失火盡爲燒燼則勢無奈 / 何故 …”

山殿의 기와를 새로 굽기도 하였고,<sup>20)</sup> 영조 26년(1750)에는 前住持 指印의 주도로 應眞殿의 불단 및 불상을 重修<sup>21)</sup>하였다. 영조 36년(1759) 봄에는 대웅전의 불상을 개금하였으며, 이 때 함께한 승려는 體普, 演竺, 惟淑 등이 同心으로 鳩財하였고, 海藏殿의 불상도 함께 金畫<sup>22)</sup>하였다.

또 영조조 이후에도 영조대왕의 御筆과 簇子 1본, 그리고 중국 명나라 「仁孝皇后勸善書」 9局을 사찰에 보관<sup>23)</sup>하기도 하였다. 이 중 「仁孝皇后勸善書」는 국조 태종 8년(1408)에 황제가 태종의 세자에게 150본을 「孝慈皇后傳」 150본과 함께 조선에 전한 기록<sup>24)</sup>이 있다.

한편, 순조 12년(1812)에는 사찰 내의 普光殿 無景壽閣이 중건<sup>25)</sup>되었다. 重建의 실무는 化主 2명과 별좌, 도감 등 사찰의 승려 4인이 주도하였다. 그리고 순조 30년(1830) 3월에는 사찰의 일부 건물이 중수되기도 하였다. 문서가 절취되어 중수된 건물을 알 수 없지만, 중수에 동원된 인물은 광흥사 승려 21명, 인근의 白雲庵 승려 5명과 봉정사의 부속 암자인 靈山庵 승려 23명 등 모두 73명이 참여한 적지않은 규모의 중창 불사였다. 다만, 사찰에 함께 전하는 순조 30년(1830)에 작성된 <八相殿上樑文>에 따르면, 순조 27년(1827) 9월에 사찰에 화재가 발생하여 大雄殿과 八相殿, 泛鍾閣, 萬歲樓, 說禪堂, 僧堂, 寮舍, 曾溪門이 燒燼되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八相殿上樑文>과 비교해보면, 서체와 글씨크기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상 73명의 인물은 八相殿 重修에 참여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동원된 인원이나 인근 사찰의 승려까지도 참여한 것으로 미루어, 비교적 큰 규모의 중수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 작성 2년 전인 순조 28년(1828)에 大雄殿과 說禪堂이 중수되었으므로, 그 후속 작업으로 僧堂이나 寮舍를 상량하면서 작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 정조 27년(1827) 刊 『野雲大禪師文集』 권2 <記> 제4장 뒷면.

21) 『野雲大禪師文集』 권2 <記> 제4장 앞면.

22) 『野雲大禪師文集』 권3 <記> 제9장 앞면.

23) 『廣興寺重建事蹟』 <重修記> 제16장 뒷면 제6행. “英宗御筆簇子一本皇朝 / 仁孝皇后勸善書九局並爲寶藏此 / 又 ….”

24) 『太宗實錄』 제15권 태종 8년 戊子 4월 2일 庚辰條.

25) 朝鮮總督府 編, 『朝鮮寺刹史料』 (東京: 國書刊行會, 1971), 1011.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순조 30년(1830) 3월에는 八相殿이 중수<sup>26)</sup>되었고, 문서의 말미에는 연화죄로 도감, 별좌, 화주 등 참여한 인물들을 나열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순조 30년(1830)에는 관련 기록이 모두 남아있지는 않지만, 대응전과 팔상전 등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볼 사실은 순조 28년(1828)에 작성된 『廣興寺重建事蹟』의 기록이다. <중건사적>에서는 순조 27년(1827) 9월의 사찰 失火사실을 알리면서, 法殿과 願堂, 樓閣, 鐘閣 등 다양한 건물들이 불타 없어졌음을 밝혔다. 또한 소실된 건물들이 구체적으로 470여 칸에 달한다<sup>27)</sup>고 명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찰에 화재가 닥친 19세기 초 광흥사의 寺勢나 그 규모가 실로 방대하였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그리고 당시 화재의 燒失 정도에 대하여, 남은 건물은 十王殿과 一柱門뿐이라 하여<sup>28)</sup> 사찰 내 거의 모든 건물이 소진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중수의 업무는 사찰뿐 아니라 관찰사를 위시한 安東府와 인근 주민들까지 적극 참여<sup>29)</sup>하였다. 더불어 <重建事蹟>에는 大雄殿과 說禪堂, 尋釧堂, 寂默堂, 御筆閣의 상량문과 중수문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상 여섯 동의 건물은 이 해(1828)에 중수가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중창 불사가 일단락된 뒤에도, 사찰 내에서는 크고 작은 중창 및 移建 불사가 이어졌다. 예컨대 헌종 15년(1849)에는 普光殿의 樓閣 및 香閣이 移建되어 중수가 마무리<sup>30)</sup>되었다. 누각의 이진 업무는 性閑, 性崑 등 사찰의 승려 5인이 분담하였다. 또한 고종 9년(1872) 3월에는 大香閣과 板香閣이 중수되기도 하였다. 당시 중수 사업은 이 해(1872) 3월 초에 시작되어 같은 달 28일에 立柱하였고, 4월 2일 上樑<sup>31)</sup>이 마무리되었다. 이로부터 4년 뒤인 고종 13년(1876)

26) 광흥사 소장 <八相殿上樑文>.

27) 『廣興寺重建事蹟』 제1장 앞면 제5행.

28) 『廣興寺重建事蹟』 제1장 앞면 제7-9행. “餘 / 存者只是十王殿一柱門而已 / 佛像 ….”

29) 『廣興寺重建事蹟』 제3장 뒷면 제2-5행.

30) 朝鮮總督府 編, 『朝鮮寺刹史料』(東京: 國書刊行會, 1971), 1012.

31) 광흥사 소장 중수문서.

5월에는 靈山殿 後閣이 상량<sup>32)</sup>되기도 하였다. 이 작업에는 승려 5명과 일반인 목수 9명이 참가하였다. 이 중 사찰의 승려 大仁, 宇俊, 道愼은 4년 전(1872) 大香閣과 관향각의 중수에도 각각 都監과 供養主, 山中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상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사찰의 오랜 역사로 미루어 상기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반해 남아있는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사찰의 연혁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접근 가능한 조선시대 사료 및 관련 기록에서 확인되는 광흥사의 주요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광흥사 주요 연혁

연도	내용	비고
세종 연간(1419-1450)	金字 法華經 1本, 御帖 1本 立願堂 보관	廣興寺重建事蹟
세조 7-9년(1461-1463)	法華經, 般若經, 志盤文 등 광흥사에 奉安	"
선조 6년(1573.04)	광흥사 동종 제작	銅鐘 銘文
숙종 9년(1683.04)	광흥사 산내암자 上樑	사찰소장 상량문
숙종 31년(1705.11)	산내암자 燒失	"
영조 3년(1727.03)	산내암자 上樑	"
영조 연간(1725-1777)	御筆, 簇子1本, 仁孝皇后勸善書 9局 사찰 보관	廣興寺重建事蹟
영조 23년(1747.05)	靈山殿 기와를 새로 구움	野雲集
영조 26년(1750)	應眞殿 佛壇 및 불상 重修	野雲集
영조 35년(1759.봄)	대웅전 및 海藏殿 불상 改金	野雲集
정조 18년(1794.03)	산내암자 再重修	사찰소장 상량문
순조 12년(1812)	普光殿 無景壽閣 重建	朝鮮寺刹史料
순조 27년(1827.09)	大雄殿, 八相殿, 泛鍾閣, 萬歲樓, 說禪堂, 僧堂, 寮舍, 曾溪門 燒燼	八相殿上樑文
순조 28년(1828.07)	大雄殿 중수	廣興寺重建事蹟
순조 28년(1828.08)	說禪堂, 寂默堂 上樑	"
순조 28년(1828.09)	凝香閣 및 나머지 梵舍 중수	"
순조 30년(1830.03)	八相殿 상량	八相殿上樑文
순조 30년(1830.03)	사찰 경내 건물 일부 重修	사찰소장 重修文
헌종 15년(1849.05)	普光殿 樓閣 및 香閣 移建	朝鮮寺刹史料
고종 9년(1872.04)	大香閣 및 板香閣 重修	사찰소장 상량문
고종 13년(1876.05)	靈山殿 後閣 上樑	사찰소장 상량문

32) 광흥사 소장 상량문서.

### 2.1.3 근대 이후 광흥사

광흥사를 비롯한 안동 인근의 사찰에는 유난히 화재와 燒失의 사례가 많다. 인근의 鳳停寺를 비롯하여 가까운 龍壽寺에서도,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여러차례 화재로 인한 지역 사찰의 전소 기록<sup>33)</sup>이 전하기도 한다. 이는 전란이나 실화 또는 고의적인 방화에 의해 기인하였던 것으로,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명찰들은 화재나 방화로 인한 소실 및 중창 불사가 잦았던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조선시대 이래로 광흥사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근대 이후에도 사찰에는 고의적인 방화나 화재가 수차례 발생하였다. 일례로 1948년 4월 4일에는 또다시 大雄殿이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화마로 鶴駕山 廣興寺의 웅대한 대웅전 법당이 전소하였다. 더불어 법당 내에 보관되었던 국보적 보물인 『月印千江之曲』과 金剛板의 18종의 경판과 華嚴經 외 10여 종의 경책 백여 권이 오유로 禍害버렸다. 또 거대한 불상과 佛幀도 모두 타버렸으며, 그 손해는 약 2,900만 원에 달한다<sup>34)</sup>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연희대학 민영규 교수<sup>35)</sup>에 의하여 ‘광흥사 등 지역 사찰에는 『月印釋譜』 2집 1권과 그 판목 222장 등 15장 『訓民正音』 판목 400여 장 등이 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속된 화재로 인하여 세계에 자랑할 만한 예술적 가치가 풍부한 불상 및 중요문화재가 거대한 사찰과 함께 한줌의 재로 소진되어 버렸다’는 지적이 재차 회자되기도 하였다. 이보다 앞서 동아일보에는 ‘慶北 安東 廣興寺 소장 月印釋譜가 最初版인 嘉靖版임이 宋錫夏에 의하여 考證되다’라는 기사<sup>36)</sup>가 보이기도 한다.

또한 1954년 極樂殿과 1962년 鶴棲樓와 大房이 낡아서 무너졌다.<sup>37)</sup> 1년 뒤 1963년에는 소실되었던 七星閣이 중수<sup>38)</sup>되기도 하였다. 당시 중수업무는 주지를

33) 허홍식, “龍壽寺開創記로 본 12세기 후반 화엄종의 단면,” 『釋林』 제18호(1984. 12), 473.

34) 『朝鮮日報』 1948년 4월 21일.

35) 『東亞日報』 1952년 11월 12일.

36) 『東亞日報』 1939년 11월 28일.

37) 안동민속박물관 편, 『安東의 寺刹』 (안동: 안동민속박물관, 1999), 19.

비슷한 7명의 募緣으로 이루어내었다.

결국 여러 차례 燒失과 중창을 거듭한 끝에, 현재 광흥사에 전존하는 전통건물은 應眞殿 3칸과 冥府殿, 凝香閣, 山靈閣, 寮舍 및 누각 1門이 남아 있는 상태다.

## 2.2 조선시대 사찰의 위상 및 서적 간행

鶴駕山과 그곳에 위치한 광흥사는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과 명찰이었다. 사료가 전하지 않아 단언하기 어렵지만, 일찍이 廣興寺는 義湘大師에 의하여 창건된 뒤 신라시대 계율의 근본 도량으로 이 지역 으뜸 사찰의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를 지나 조선시대에 중앙에서 각 사찰을 기원장소로 지정할 때도, 상위 사찰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조선 초기 세종과 세조조에는 국가의 願堂으로 자리매김<sup>39)</sup>하였고, 조선 후기 영조 때까지 임금의 친서와 병풍, 어첩이나 족자를 보관하였다는 정황<sup>40)</sup>으로 미루어, 이 시기까지도 사찰의 위상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광흥사의 寺格에 부합되어 사찰에서는 일찍부터 서적의 간행 및 유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고려시대의 서적 간행 기록 및 기록물은 전하지 않으나, 조선초 세종과 세조조에 御製 및 御帖, 御筆을 사찰에 보관하였던 기록과 더불어 16세기 초부터는 본격적인 불경의 간행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찰의 출판 활동은 중종 20년(1525) 『佛說阿彌陀經』을 필두로 중종 22년(1527) 『妙法蓮華經』, 중종 25년(1530) 『金剛般若波羅密經』<sup>41)</sup> 등 16세기에만 23종의 불경이 간행되었다. 이후로도 경내의 판각 사업은 18세기까지 지속되었고, 당시 축적된 사찰의 기술력은 19세기 유가 문집의 출판으로까지 이어지기

38) 광흥사 소장 문서 <廣興寺七星閣重修緣>. “佛紀二九八九年八月二十八日 / 鄙人欲 ….”

39) 조선 초기 국가의 원당으로 廣興寺를 지정하였다는 正史의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세종 연간에는 御帖과 경전을 왕명으로 사찰에 보관한 기록이 있고, 세조조에도 왕명으로 여러 경전을 광흥사에 보관케 한 기록이 전한다.

40) 『廣興寺重建事蹟』 제17장 뒷면 <御筆閣記> 제5-9행.

41)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48.

도 하였다.

한편, 왕성한 불서 간행이 이루어지던 16세기 광흥사는 유불이 융합된 공간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사찰에서는 16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유생들이 기거하기도 하였고, 이들과의 교류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月川 趙穆(1524-1606)은 중종 38년(1543) 10월 그의 나이 22세에 廣興寺로 들어가 독서<sup>42)</sup>하였고, 학봉 金誠一(1538-1593) 또한 그의 청년 시절이었던 명종 12년(1557) 18세의 나이로 경내에 들어와 독서<sup>43)</sup>한 이력이 있다. 이 밖에도 退溪 李滉(1501-1570) 역시 그의 연보에서 66세 되던 해인 명종 21년(1566) 丙寅 1월부터 4월까지 광흥사에 머문 행적<sup>44)</sup>이 드러나기도 한다. 鵝溪 李山海(1539-1609)도 그의 문집에서 광흥사에 한동안 머물면서 사찰의 고즈넉함과 빼어난 절경을 칭송<sup>45)</sup>하기도 하였다. 이후로도 유생들과 광흥사의 인연은 끊이지 않았고, 특히 18-19세기 영남유림의 상당수 문집에서는 광흥사를 거닐거나 독서하는 것은 물론, 여러 선비들과 모여 강회를 하거나 사찰에 머물면서 先祖의 장례를 도모하는 등 사찰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생들의 체류와 방문이 잦았던 공간이었던 만큼, 사찰에서는 승려와 유생 간의 마찰 또한 없지 않았다. 예컨대, 명종 20년(1565)에는 안동부 광흥사의 승려들이 유생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sup>46)</sup>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사헌부에서는 儒者와 佛者는 얼음과 숯불처럼 화합하지 못하고, 유생들과 마찰이 적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를 조율할 것을 명한 사례<sup>47)</sup>가 있었다. 이후로도 이러한 표면적 마찰은 유불이 교차한 공간에서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에서는 廣興寺의 사례처럼 표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비단 광흥사뿐 아니라 해인사, 송광사 등 국내의

42) 顯宗 7년(1666) 刊 『月川先生文集』〈年譜〉 제2장 앞면 제 9-10행.

43) 철종 2년(1851) 刊 『鶴峯先生文集』〈附錄〉 권1 〈年譜〉 제2장 뒷면 제7-8행.

44) 헌종 9년(1843) 刊 『退溪集』〈退溪先生年譜〉 제2권 〈年譜〉 권제2 제3장 뒷면 제8행.

45) 광해 연간 刊 『鵝溪遺稿』 제3권 〈箕城錄〉 권3의 〈雜著〉 제31장 뒷면.

46) 『明宗實錄』 권31 명종 20년 3월 13일 庚戌條.

47) 『明宗實錄』 권31 명종 20년 3월 14일 辛亥條.

여러 사찰에서 儒家 문집을 간행한 사례가 빈출하였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사찰에서 유생의 문집을 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18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사찰의 위상이나 그 성격이 변화되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대대로 이어온 폐쇄적이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유생들의 교류와 간섭으로 인해 세속과 유착되고 정치적 관계로까지 변질된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이후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여기에는 당시 불교계가 놓인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관점도 빠트릴 수 없다. 이는 곧 불교에 대한 국가적인 탄압이 지속된 상황에서 사찰의 자구책이 유생의 수용이나 재지 사족과의 결탁 관계로 발전되었던 것이고, 사찰 입장에서는 혼란한 시기에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儒佛의 교착은 조선 후기 지방 불교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불교 민중화에 대한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한 현실과의 타협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외적인 상황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사찰에는 이미 활발한 불경 간행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출판을 위한 제반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이미 주어진 인적·물적 자원이 儒家 문집 간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광흥사 또한 인근 鳳停寺와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당시 이러한 분위기에 예외일 수 없었다. 이에 儒家 문집판을 사찰에 보관<sup>48)</sup>하기도 하였고, 당시 갖추어진 인쇄 출판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사찰에서는 유가 문집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雨臯集』 권2에 따르면 문집의 저자인 金道行(1728-1812)이 정조 23년(1799)에 李象靖의 아들 李堉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 편지에는 蔡濟恭(1720-1824)의 『樊巖集』 刊役이 사찰에서 도모된 정황을 수록하였다. 즉, 金道行은 李堉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sup>49)</sup>하고 있다.

48) 숙종 37년(1711) 刊 『谷雲集』 <序文> 및 영조 29년(1753) 『仙源先生續稿』 <重刊跋>의 다수.

49) 『雨臯集』 권2 <書>의 제29장 <答李釋春>. “... 樊巖集刊役設施 / 於廣興寺未知吾鄉士林其能盡心此事無負本 / 家付托之意否乎 ...”

『樊巖集』을 간행할 때 여러 제현들이 교정은 알아서 잘 할 것이라 믿는다. 문집의 印刊은 廣興寺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蔡濟恭 집안에서 부탁한 대로 잘해내고 있는가?

이 밖에도 19세기 일부 문집에서는 후손들이 광흥사에 모여 선대의 遺文을 정리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찰에서 간행으로 이어졌을 정황을 밝힌 판본이 보이기도 한다. 비단 이러한 판본들 뿐 아니라, 19세기 이후 간행되었던 지역 유림의 문집 중에는 간기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간역 작업이 광흥사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세기까지도 광흥사는 지역 내에서 가장 왕성한 출판 활동을 담당하였다는 점과 당시까지 유지되었던 광흥사의 규모나 인적 물적 자원 및 사찰이 보유한 인쇄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사실에서 충분히 짐작된다.

하지만 이처럼 활발한 사찰의 간행 활동에 비하여 현재까지 사찰에 전존하는 전적 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광흥사에는 필사본 『廣興寺重建事蹟』 1책을 비롯하여, 『眞言集』 사본 1책, <八相殿上樑文>과 <靈山殿後閣上樑文>을 포함한 상량문과 중수문 8점, 冥府殿의 十王 半跏像의 복장일괄 다라니 일부와 날장으로 朱印되어 다라니와 같이 봉안된 『妙法蓮華經』 3점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典籍 문화재의 湮傳은 비교적 근대에 발생된 수차례의 화재 및 그로 인한 건물의 대대적인 소실, 그리고 그간 여러 차례 발생하였던 문화재 도난 사건에서 기인하였다. 더불어 사찰에 전해져 내려오던 다수의 불경 판목들도 당시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16세기 이후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불서 판본들은 새겨진 뒤 신도 및 각 처에 分級되었던 탓에, 현재까지 여러 기관 및 소장처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이를 통해 한때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광흥사의 출판 활동을 소급하여 추정해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3. 간행 불서의 현황

#### 3.1 간행 현황

여기서는 각종 문헌 및 서지 자료, 소장처의 목록 등에서 확인되는 광흥사 간행 불서의 현황을 개관하여 보았다. 후속 작업으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고서 소장처에서 확인되는 광흥사관 목록을 조사하고, 접근 가능한 자료들은 실사하였다. 이에 광흥사에서 간행되었거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광흥사관 불서의 전체 현황을 밝히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소장처의 광흥사관 불서 현황

연번	연도	서명	소장처	비고
1	1525(嘉靖 4)	『佛說阿彌陀經』 1책(完)	장서각, 계명대, 동국대	·
2	1527(嘉靖 6)	『妙法蓮華經』 영본 4권 2책(缺)	국중(권1, 권5-7) 월정사(권1)	·
3	1530(嘉靖 9)	『金剛般若波羅密經』 <五家解> 2권 2책(完)	경북대, 고려대, 계명대	·
4	1538(嘉靖 17)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책(完)	국중	·
5	1538(嘉靖 17)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책(完)	성암고서, 개인소장본	·
6	1539(嘉靖 18)	『蒙山和尚六道普說』 1책(完)	동국대, 국중, 전남대, 규장각	·
7	1542(嘉靖 21)	『月印釋譜』 영본 권21 上·下 2권 2책	고려대, 충남대, 서울대, 동국대 등	·
8	1562(嘉靖 41)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책(完)	성암고서, 동국대	·
9	1562(嘉靖 41)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1책(完)	성암고서, 동국대, 국중	·
10	1562(嘉靖 41)	『志盤文』	<父母恩重經> 권말기록	印本 無
11	1562(嘉靖 41)	『識初心學人文』	"	"
12	1562(嘉靖 41)	『三法語』	"	"
13	1562(嘉靖 41)	『六祖大師法寶壇經』	"	"
14	1562(嘉靖 41)	『星宿祭文』	"	"
15	1563(嘉靖 42)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1책(完)	영남대, 고려대	·
16	1563(嘉靖 42)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劉鐸一 소장	인본 확인 불가
17	1568(隆慶 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朝鮮舊書考	인본 확인 불가
18	1568(隆慶 2)	『仔夔刪補文』 영본 1책(권제10)	동국대, 규장각, 영남대, 연세대	·

연번	연도	서명	소장처	비고
19	1570(隆慶 4)	『金剛般若波羅密經』 1책(完)	송광사, 규장각, 계명대, 중앙대, 전남대, 국중	.
20	1572(隆慶 6)	『妙法蓮華經』 영본 2권 1책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인본 無
21	1576(萬曆 4)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책(完)	성암고서, 동국대, 계명대, 충남대, 국중	.
22	1678(康熙 17)	『妙法蓮華經』 영본 1권 1책	경북대, 성암고서, 계명대, 단국대	.
23	1739(乾隆 4)	『金剛般若波羅密經』 1책	경상도철백년사	인본 확인 불가

### 3.2 전존본의 특징

이 장에서는 광흥사판 불서의 특징 및 판본에 나타나는 주요 기록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한 實査를 원칙으로 세웠으나, 관련 기록 또는 책의 서지만 전할 뿐 실물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자료 등 접근 불가한 자료들이 있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장목록이나 간행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기관 방문 시 실물 자료로 인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판본의 소장처를 알 수 없거나 연구자가 접근이 어려운 자료는 서지사항 및 간행 사실을 밝힌 것으로 대체하고, 실사 가능한 책에 대해서는 판본의 특징 및 관련 기록을 정리하였다. 결국 광흥사 간행 서적으로 알려진 23종 가운데 14종의 인본을 조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이어 기술할 전존본의 서지 및 관련 기록의 검토에서는 실물이 확인된 14종을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 3.2.1 중종 20년(1525) 刊 『佛說阿彌陀經』 1책 (完)

佛說阿彌陀經/ 鳩摩羅什(後秦) 奉詔譯, 木板本

安東: 廣興寺, 中宗 20[1525]

不分卷 1冊(20張): 四周單邊, 半郭 24.5 × 15.8 cm, 無界, 半葉 6行12字, 上下大黑口, 上下黑魚尾; 26.5 × 19.8 cm

版心題: 彌陀經

刊記: 下柯山廣興寺開板 嘉靖四年乙酉(1525)十月日至

이 판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경전의 본문은 淨土에 관하여 석가가 스스로 설법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佛說阿彌陀經』은 5세기 초 鳩摩羅什이 번역한 판본과 5세기 중엽 求那跋陀羅가 한역한 판본, 7세기 중엽의 玄奘번역본 외에 티벳역본 등 다양한 번역본이 전존한다. 우리나라에는 이 가운데 鳩摩羅什 번역본이 주로 유통되었다. 현존하는 <阿彌陀經>의 한문본 판본은 고려시대부터 여러 사찰에서 30여 차례 이상 간행되었던 사실을 서지 기록상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언해본과 『六經合部』, 『三經合部』 등 합간된 종수를 제외하고, 사찰 단행본으로만 간행된 종수이다. 또한 이 판본들은 형태상 상단에 변상도가 있고, 하단에 경전의 원문을 수록한 판과 순수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판본으로 나뉘어진다. 광흥사판은 변상없이 원문으로만 간행된 판본이다.

동국대 소장본의 표지 이면에는 본문의 글자와 비슷한 크기로 ‘此經讀誦後先父母遷度 / 主上殿下聖壽歲 / 王妃殿下聖壽歲 / 世子邸下聖壽歲’라고 목서되어 있다. 이 문구는 경전 간행과 비슷한 시점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의 사이사이에는 목서로 된 구결이 쓰여 있고, <阿彌陀經>의 경전 본문은 제14장의 앞면까지 마무리 되었다. 제14장 뒷면부터 제18장까지는 呪文과 眞言, 偈文이 순서대로 판각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본문과 체제를 달리하였고, 8행에 글자는 15-16자로 드나들 있게 새겼다. 본문의 마지막 장인 제18장의 뒷면 제5행에서 제10행에는, 다음과 같은 간행 관련 기록이 단을 나누어 판각되어 있다.

下柯山 廣興寺 開板 / 嘉靖四年 乙酉 十月日至 / 大施主 朴末乙同 兩主 /  
大施主 張仲南 兩主 / 各各結願隨喜施主 / 大功德主 齊安大君 兩位 /  
刻 信草 / 緣化比丘 天觀 宿能 /

이상과 같이 책의 간행은 대시주 4명과 대공덕주로 齊安大君 부부가 참여하였고, 각수 1명과 연화 비구 2명이 가담하였다. 특히, 대공덕주로 참여한 제안대군은

예종의 둘째아들이자 왕위 싸움에서 성종에게 밀려난 齊安大君 李瑁(1466-1525)으로 여겨진다. 李瑁은 아버지인 睿宗(1450-1469) 임종시 왕위 승계 1순위였으나, 어린 나이로 말미암아 성종에게 후계자 자리를 빼앗겼고, 이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주로 홀로 거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책이 간행되던 해(1525) 12월에 별세<sup>50)</sup>하였고, 말년에 대한 행적이 자세하지 않았으나, 이로써 광흥사와의 인연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3.2.2 중종 22년(1527) 刊 『妙法蓮華經』 영본 4권 2책 (권1, 권5-7)

妙法蓮華經. 卷1,5-7/ 鳩摩羅什(秦) 奉詔譯. 木板本

表題 : 法華經

版心題 : 法華經

序題 : 妙法蓮華經弘傳

安東 下柯山 : 廣興寺, 中宗 22(1527), [後刷]

4卷 2冊 :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9 × 16.2 cm, 有界, 8行13字 註雙行, 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33.7 × 20.6 cm

刊記 : 嘉靖六年丁亥(1527)九月日慶尙道 安東府地 下柯山 廣興寺 開板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권1의 1책과 권5-7의 1책이 영본으로 남아 있고, 월정사에 권1의 1책이 소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광흥사판의 완질은 전존본으로 추정컨대 전체 7권의 3책 또는 4책본으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광흥사판의 체제가 김수온 발문이 추가된 15세기 성종조 간본의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책 수를 단정할 수 없는 것은 간행 사찰에 따라 제본의 분량은 임의로 결정되었던 탓이다.

본문의 편성은 권1의 내용 시작에 앞서 변상도를 가장 앞쪽에 새겼고, 연이어 終南山 승려 道宣이 작성한 ‘妙法蓮華經弘傳序’를 한 장 반에 걸쳐 판각하였다.

50) 『中宗實錄』 권제56 乙酉年 12월 14일 戊戌條.

본문의 양식은 흑구가 선명하고, 글자는 大字로 일관되게 새겼으며, 드물게 보이는 註는 쌍행으로 판각하였다. 이러한 양식의 <법화경> 판본은 최근 연구에 의하면, 광흥사판에 앞서 성종 즉위년(1470)의 왕실 간본과 성종 19년(1488)에 간행된 기림사 소장본 및 16세기 이후의 판본이 40종 더 남아 전하는 것으로 조사<sup>51)</sup>되기도 하였다.

한편, 간행 관련 기록으로 권1의 말미에는 2단으로 구분하여 刊記 및 간행 참여자들을 밝히고 있다. 권7의 말미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한 장을 추가로 인출하여 권1의 끝에 편철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권7의 말미에도 동일 기록이 나타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嘉靖六年 丁亥 九月日 慶尙道 安東府地 下柯山 廣興寺 開板 /  
 主上殿下 萬歲壽萬歲 / 王妃殿下 齊年壽齊年 / 世子邸下 千秋壽千秋 /  
 大施主 族親衛 李健 兩主 / 大施主 李內隱金 兩主 / 大施主 柳根金 兩主 /  
 大施主 盧玉山 兩主 / 大施主 權今 兩主 / 大施主 張仲南 兩主 /  
 權閔祚 兩主 / 姜守善 兩主 / 嗣南 兩主 / 趙長生 兩主 / 四生 兩主 /  
 鄭文 兩主 / 權南 兩主 / 金末山 兩主 / 鄭壯 兩主 / 李秀 兩主 /  
 尹仁 兩主 / 閔從連 兩主 / 尹貴吳 兩主 / 金萬同 兩主 / 朴筏嚴 兩主 /  
 文萬哲 兩主 / 李衆山 兩主 / 金允 兩主 / 金同 兩主 /  
 金莫實 兩主 / 白苐此同 兩主 / 鄭毛知昱 兩主 / 李加其知 兩主 /  
 權俊 兩主 / 李賢 兩主 / 加外 兩主 / 今山 兩主 / 祖修 / 允禪 /  
 正會 / 雪蟾 / 信聞 / 訥叱山 兩主 / 文揆同 兩主 / 金秀奉 兩主 /  
 李順亨 / 刻 思玄 惠閔 張連同 / 大化主 宿能 比丘 / 化主 天觀 比丘 /

### 3.2.3 중종 25년(1530) 刊 『金剛般若波羅密經』 <五家解> 上·下 2권 2책 (完)

金剛般若波羅密經.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傅大士 贊; 六祖 口訣; 圭峯 纂要; 冶父 頌; 宗鏡 提綱; 得通 說誼.]

版心題: 金剛經, 木板本.

安東: 廣興寺, [嘉靖 9年(1530)].

51) 鄭王根, “조선시대 『妙法蓮華經』의 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131.

2卷 2冊：插圖，四周單邊 半廓 26.5 × 18.5 cm, 有界, 9行19字, 上下內向黑魚尾；37.6 × 24.5 cm.

序說：永樂乙未(1415)六月日涵虛堂納守伊盥手梵香謹序

刊記：嘉靖九年(1530)庚寅孟夏慶尙道安東地下杻山廣興寺開板

이 판본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金剛經五家解>는 無學 自超(1327-1405)의 제자이자 여말 선초에 활동하였던 涵虛堂 得通(1376-1433)이 梁나라 傅大士(497-569), 唐의 宗密(780-841)과 慧能(638-713), 宋의 宗鏡과 川老 이상 5명의 <금강경> 해설을 모아서 편찬한 판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초기 간행은 세조 3년(1457) 12월에 왕명에 의하여, <永嘉集>과 <證道歌>와 더불어 100부가 인출<sup>52)</sup>되었던 기록이 있다. 그리고 당시 간행되었던 판본이 일부 소장처에 실물로 남아 전하는 바, 책의 인출 시 큰 글자는 丁丑字로 중간 글자와 작은 자는 甲寅字로 조판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광흥사판은 丁丑字와 甲寅字를 식자하여 인출한 초기 활자본의 번각본이다. 활자 초간본이 간행된 뒤 약 70년의 차이를 두고 광흥사에서 번각되었다. 이 판본은 상권과 하권의 본문 시작에 앞서 변상도를 각각 1장씩 판각하여 편철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판의 새김이 아주 정교하여 얼핏 보아서는 원본과의 혼돈이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새겨졌다. 판의 특이 사항은 본문의 魚尾가 上下內向의 黑魚尾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이 가운데 드물게 어미 속에 ‘崇’, ‘刀’, ‘之’, ‘冏’ 등의 글자를 아주 작게 판각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판을 조각한 각수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 이 가운데 ‘崇’과 ‘冏’은 하권의 권말 기록 중 鉢椀秩에 나타난 ‘法崇’과 ‘僅冏’으로 생각된다.

경북대 소장본은 본문의 사이사이에 경전을 읽은 흔적으로 묵서된 약체 구결이 나타난다. 그리고 판본의 인출은 새긴 뒤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찍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글자획의 마멸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계선의 일부만 훼손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권의 말미에는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계선 없이

52) 윤병태, 『韓國書誌年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24.

발문 및 간행 관련 기록을 단을 구분하여 새겨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夫金剛經旨甚微奧學者所不能討而五家之註解者豈非爲群 /  
 迷作金碑耶尋流而得源據未而探本迷者乃悟昏者造慧明佛 /  
 教於萬萬千歲者豈偶能哉而墨本猶存而嶺南諸寺無復有刊 /  
 者學者之病此久矣有比丘六清者慨能有意於開刊勤辛數載功 /  
 就于今以爲永傳之資于所謂以予觀於夫子賢於堯舜遠矣者也 /  
 別洞後齋梅隱跋 /  
 前上院住持 義澄 / 性道 / 智罔 / 法行 / 性如 / 道敏 / 清玉 /  
 戒旭 / 惠眉 / 信草 / 海峯 / 靈守 / 信峯 / 祖澄 / 祖閑 / 信成 /  
 隱悟 / 正心 / 克淳 / 熙允 / 智月 / 僧印 / 道岑 / 思牧 / 笠梅 /  
 海幢 / 尙敏 / 尙雲 /  
 大施主 鄭末乙之 兩主 / 大施主 池今山 兩主 / 大施主 李內金 兩主 /  
 大施主 鄭春楨 兩主 / 南補安 兩主 / 權仁 兩主 / 禿山 兩主 / 盧玉山 兩主 /  
 大施主 朴金 兩主 / 張仲南 兩主 / 介屎 兩主 / 金孫 兩主 / 權平 兩主 /  
 權季近 兩主 / 林莫丞 兩主 / 南九 兩主 / 鄭文 兩主 / 崔命孫 兩主 /  
 崔彥貞 兩主 / 權今 兩主 / 金莫同 兩主 / 權鶴鳳 兩主 / 金孫 兩主 /  
 皮得山 兩主 / 允同 兩主 / 金末乙孫 兩主 / 死乙山 兩主 / 李加乙其知 兩主 /  
 京[ ] / 李莫同 兩主 / 有德 / 有今 / 莫非 / 權泉萬 兩主 / 鄭無作只 兩主 /  
 下通 兩主 /  
 鉢梓秩 法崇 僅罔 敍雨 / 鍊板 祖根 / 供養主 學心 熙衍 / 勸化 六清 慈秀 /  
 嘉靖九年庚寅孟夏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板 /

### 3.2.4 중종 33년(1538) 刊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책 (完)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木板本

安東 : 廣興寺, [中宗 33(1538)]後刷

1冊(54張) : 祈禱手, 四周單邊 半郭 27.8 × 20.5 cm, 有界, 7行17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 37.5 × 25.5 cm

刊記: 嘉靖十七年戊戌[1538]七月日 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板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판본이다. 책의 본문에는 수록재의 절차나 방법을 설명하였고, 특히 부처의 손가락 모양에 따른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도판을 수록하였다. 이로 인해 판본의 정식 서명보다 <結手文>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현전하는 <결수문> 판본은 40종이 넘으며, 이에 대하여 간본의 현황 및 서지적 특징이 조사<sup>53)</sup>되기도 하였다. 또한 <결수문>의 간행상 특징은 독자적으로 출판된 사례 못지않게, <중례문>이나 <志盤文> 등 다른 의식서와 함께 판각되었던 양상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광흥사판 역시 같은 해(1538) 같은 시기(7월)에 <中禮文> 즉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와 함께 간행되었다.

책의 후반부에는 부록으로 <水陸齋儀疏榜文牒節要>가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글자 크기를 비롯하여 앞부분이 판심제를 ‘結’로 통일하여 새긴 것에 반해 ‘榜’과 ‘疏’로 새겨 차이가 나타난다. 본문의 행자수도 7행 17자의 대자로 새긴 <結手文>의 본문에 비해 9행 20자로 조밀하게 배열하였다. 그 내용은 門榜, 壇榜, 浴室榜 등 천도제에 쓰이는 榜文과 召請使者疏, 開通五路疏, 召請上位疏 등 의식의 주문을 정리한 것이다. 현존하는 판본의 상당수는 부록으로 첨부한 <소방문첩절요> 부분이 <결수문>의 후반부에 붙어 있다. 또한 <중례문>의 말미에 첨부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된다. 공교롭게도 종종 33년(1538) 간행된 광흥사판 <결수문>과 <중례문>에는 모두 이 <소방문첩절요>가 합철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의 말미에 밝힌 간행 참여자 및 판각 기록 또한 완전히 일치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主上三殿壽萬歲 /  
嘉靖十七年戊戌七月日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板 /  
祖休 / 信成 / 法心 / 玉戒 / 性了 / 信崑 / 克淳 / 熙默 / 僧印 / 熙允 /  
玄俊 / 信成 / 能下 / 僅空 / 無一 / 祖洪 / 道心 / 云宗 / 玄隱 / 性熙 /  
海衍 / 海幢 / 惠器 / 印敬 / 法連 / 戒灯 / 一惠 / 性天 / 祖仁 / 竺惠 /  
衍熙 / 道文 / 慈性 / 海雲 / 海正 / 智仁 / 玉連 / 心祖 / 僅修 / 祖罔 /  
戒淡 / 戒連 / 學能 / 天觀 / 戒旭 / 智全 / 法澄 / 僅云 / 草田 / 道淳 /  
性格 / 僅僖 / 正海 / 道稚 / 信安 / 田明 / 克祖 / 雲[ ] / 一全 / 道罔 /  
性連 / 海淳 / 性悅 / 道熙 / 性默 / 敬訓 / 玄熙 / 涑允 / 僅明 / 宗熙 /  
信淸 / 林登 / 熙尙 / 戒雄 / 佛崑 / 田鑑 / 智會 / 修仁 / 海岑 /

53) 禹秦雄,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50집(2011. 12), 351-386.

金勿沙里 兩主 / 能祖 / 吳万国 兩主 / 柳苒叱山 兩主 / 安万年 兩主 /  
 安客 兩主 / 守德 / 千德 靈駕 / 龜永 兩主 / 吳彩 / 朴山 兩主 /  
 鄭連 兩主 / 金同 兩主 / 金孫 兩主 /  
 大施主 安逸戶長 張彥弼 兩主 / 大施主 崔伐巨之 兩主 / 大施主 林莫生 兩主 /  
 大施主 金無作只 兩主 / 大施主 張士南 兩主 / 大施主 權仁 兩主 /  
 大施主 權平 兩主 / 禦侮將軍 鄭文 兩主 / 記官 金宰 兩主 /  
 白延孫 兩主 / 盧玉山 兩主 / 盧万壽 兩主 / 万非 / 李蕨丸 知 / 李尿孫 兩主 /  
 金漢石 兩主 / 卍古音未 兩主 / 卍莫終 兩主 / 張石同 兩主 / 閔末應松 兩主 /  
 金億壽 兩主 / 鄭孝同 兩主 / 鄭末乙之 兩主 / 池李倫 兩主 / 金成孫 靈駕 /  
 其叱非 / 姜非 / 任貴成 / 良今 / 古邑之 /  
 刻刀秩 [ ] ㄱ崇 /  
 鍊板 熙云 /  
 供養主 信云 性文 根耕 /  
 幹善 慎初 /

### 3.2.5 중종 33년(1538)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책 (完)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 [六行] 編, 木板本

安東 : 廣興寺, 中宗 33(1538)刊

線裝1冊(80張) : 四周單邊 半郭 27.5 × 20.5 cm, 有界, 7行17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 36.2 × 24.3 cm

表題 : 中禮文

刊記: 嘉靖十七年戊戌(1538)七月日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刊

이 판본은 성암고서박물관에 1책이 소장되어 있고, 동일 판본이 개인소장본으로 전하기도 한다. 책의 내용은 水陸 의식 때 행하는 여러 절차를 제1편 <設會因由篇>에서 <奉送六道篇>에 이르기까지 모두 35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렇게 篇을 나눈 부분 중에는 <결수문>과 중복된 부분도 다소간 있다. 본문의 대자로 새긴 본문의 사이사이에는 내용을 읽은 흔적으로 약체 구결이 필사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註를 단 부분은 쌍행의 소자로 판각하였다. 인본의 상태는 책의 하단부에 일부 蟲毀가 있으나, 본문의 인쇄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자양이 선명한데 반해, 판심이나 계선 부분에 약간의 마멸이 발생하였다.

책의 권말에는 초간 당시 김수온이 작성한 발문이 그대로 판각되어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貞懿公主가 자신의 죽은 남편인 양효공 安孟聃(1415-1462)을 기리고, 부처의 大乘이 크게 번창하도록 빌고 있다. 또한 <법화경>과 더불어 <수륙의문>, <小彌陀懺>, <結手文>판의 판각을 도모하였던 사실을 밝혔다. 그에 따라 김수온의 형인 秀菴道人 信眉에게 판각의 일을 협의하였으며, 강원도 井林寺에 일부 판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공주의 바람으로 거리가 있더라도 이 판들을 모두 서울의 三角山 道成庵으로 옮겨왔으며, 누락된 것은 새로 새기고 추가하여 예종 1년(1469)에 刻成을 마무리 하였다. 도성암에서는 이 해(1469)에는 비단 상기의 판본 외에 『地藏菩薩本願經』도 함께 간행<sup>54)</sup>되었고, 현존본의 기록에 유사한 내용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광흥사판의 권말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같은 해(1538) 판각된 <結手文>과 동일한 간행 참여 기록 및 간기가 수록되어 있다.

요컨대, 중종 33년(1538) 광흥사에서 새겨진 <중례문>은 같은 시기 판각된 <結手文>과 더불어 현존하는 불교 의식서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판본이다. 더불어 전존본 중에는 예종 1년(1469) 간행된 <中禮文><sup>55)</sup>과 <結手文><sup>56)</sup>이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서, 두 판본 모두 초판 간행시(1469)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료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

### 3.2.6 중종 34년(1539) 刊 『蒙山和尚六道普說』 1책 (完)

蒙山和尚六道普說, [蒙山 德異 著], 木版本.

安東 : 廣興寺, [中宗34(1539)]刊.

1冊(24張): 四周單邊, 半郭 23.1 × 16.0 cm, 無界, 半葉 6行13字, 上下大黑口,

54) 南權熙, “『地藏菩薩本願經』의 판본 연구,” 『古印刷文化』 第13輯(2006. 12), 70.

55) 한지희, “죽암 편찬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의 서지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56) 禹秦雄,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50집(2011. 12), 363-364.

內向黑魚尾; 31.8 × 20.5 cm

刊記: 嘉靖十八年 己亥(1539)二月日 慶尙道 安東地 下柯山 廣興寺 開板

이 판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본문은 南宋과 元代에 활동한 임제종 승려 蒙山 德異(1231-[1308])가 六道와 輪廻에 대하여 설법한 내용을 다루었다. 책의 표지에는 ‘六道普說’이라는 제목이 대자로 필서되어 있고, 본문은 계선없이 대자로 6행 13자를 배열하여 일정하게 새겼다. 판심의 제목은 ‘普’로 판각하고, 어미의 상하단에 대흑구가 선명하다. 그리고 본문의 사이사이에는 책을 읽은 흔적으로 약체 구결이 필사되어 있다. 책의 전체 분량은 24장에 달하며, 마지막 장은 간행 관련 기록이 나타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嘉靖十八年己亥二月日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板 /  
大施主 金漢石 兩主 / 漆大施主 朴義孫 兩主 / 大施主 朴北叱間 / 玉今 /  
大施主 金通代 兩主 / 大施主 金仕同 兩主 / 大施主 朴迪朴安伊 兩主 /  
大施主 其非許同 兩主 / 李千 兩主 / 每邑德 / 嗣南 兩主 /  
大隱山 兩主 / 大施主 金每邑松 兩主 / 金無作只 兩主 /  
金忠南 兩主 / 金忠辰 兩主 / 秋孟松 兩主 / 分德 /  
黃石孫 兩主 / 洪戒成 兩主 / 金万石只 / 池戒宗 / 池戒倫 兩主 / 日山 /  
伶戒同 靈駕 / 尊德 靈駕 / 金內撈 靈駕 / 仲德 靈駕 / 柳弼山 兩主 /  
李洞從 兩主 / 朴季林 兩主 / 性天 / 竺敏 / 天觀 / 天印 / 玉仁 / 仁默 /  
云終 /  
刻手 [ ] / 鍊板 熙云 / 供養主 性文 根罔 / 幹善 慎初 /

### 3.2.7 중종 37년(1542) 刊 『月印釋譜』 권21 상·하 2권 2책

月印釋譜 第21[上·下] / [世祖 編], 木版本[國漢文混用]

安東: 廣興寺, 中宗 37(1542)

1卷2册: 四周單邊, 半郭 20.1 × 17.1 cm, 有界, 半葉 7行16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3.3 × 21.6 cm

卷首題: 月印千江之曲. 第21. 釋譜詳節. 第21

版心題: 月印釋, 月印釋譜

刊記: 嘉清二十一年壬寅(1542)三月日慶尙道安東下柯山廣興寺開板

상기의 서지 기술 대상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D218.89 세750 v.21)이다. 소장본의 제본 형태는 21권을 상하 2책으로 나누어 편철되어 있고, 판심에 새겨진 상권의 장차는 114張으로 마무리 되었다. 연이은 하권이 115장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미루어 후대에 제본하면서 편의상 두 책을 나누어 편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권에는 상권의 말미에 붙어있는 것과 동일한 간행관련 기록이 2장 포함되어 있다. 간행 기록을 새긴 면은 동일한 판으로 찍었고, 판심에 간기를 새기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또한 「月印釋譜」 권21의 본문이 끝나는 하권 제222장의 말미에는 ‘月印千江之曲 二十一 二十一 / 釋譜詳節第二十一 摠二百二十二張’이라고, 권21의 전체 장수를 밝히기도 하였다. 뒤를 이어 새겨진 간행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嘉清二十一年壬寅三月日慶尙道安東下柯山廣興寺開板 /  
王妃殿下壽萬歲 / 主上殿下壽萬歲 / 世子殿下壽千秋 /  
大施主 金士同 妻 石乙今 兩主 / 權億孫 兩主 /  
大施主 金通大 妻 千德 兩主 / 鄭信 兩主 /  
大施主 盧玉山 兩主 / 金永同 兩主 /  
大施主 鄭文 妻 泉只丞介 兩主 /  
大施主 權安 兩主 / 訥叱非 /  
大施主 林莫生 兩主 / 金永文 兩主 /  
大施主 張士南 兩主 / 金於乙[乙丸]之 兩主 /  
大施主 張彥弼 兩主 / 張萬 兩主 /  
大施主 姜文山 兩主 / 林義孫 兩主 / 洪戒上 兩主 /  
大施主 權同 兩主 / 僧施主 信崇 大寬 心祖 玄隱 義寬 智祖 性宗 性了 仁默 /  
大施主 嚴古未 兩主 / 大施主 安文 兩主 / 大施主 權同 兩主 /  
大施主 有卜只 兩主 / 大施主 金貴永 兩主 /  
大施主 李仇知 妻 鄭非 兩主 / 智忽 雪菴 雪心 一祖 /  
張山 兩主 / 余伊同 兩主 / 盧万壽 兩主 / 文石 兩主 /  
權迪 兩主 / 金忠南 兩主 / 金者斤 兩主 / 張金同 兩主 /  
金長守 兩主 / 金化上 兩主 / 鄭石乙仇知 兩主 / 朴小山 兩主 /  
朴莫金 兩主 / 權莫山 兩主 / 內隱之 / 金空 兩主 /  
金伊 兩主 / 金松風 兩主 / 閔之 兩主 / 閔從達 兩主 /  
權者生 兩主 / 番山 兩主 / 張莫失 兩主 / 金今音未 兩主 /

元仍叱同 兩主 / 南大萬 兩主 / 元仍邑同 兩主 / 李長守 兩主 /  
金長 兩主 / 千同 兩主 / 林同 兩主 / 莫石 兩主 / 千守千 兩主 /  
莫辰 兩主 / 全奉孫 兩主 / 元孫 兩主 /  
敬順 / 處[至/夏] / 一正 / 刻手 慎初 / 鍊板 熙云 達修 /  
供養主 覺洽 / 化主 雪云 / 筆書 前戶長 金其席 /

### 3.2.8 명종 17년(1562) 刊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책 (完)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鳩摩羅什 (後秦) 譯, 木板本

安東: 廣興寺, 明宗17[1562]刊

1冊[22張]: 圖, 四周單邊, 半郭 19.5 × 15.2 cm, 半葉 8行10字. 上下中黑口, 內向黑魚尾; 31.0 × 20.0 cm

刊記: 嘉靖四十一年壬戌(1562)六月 日 慶尙道 安東地下柯山廣興寺...蔡文等開板

이 판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광흥사판 <은중경>에 대하여는 일찍이 윤병태<sup>57)</sup>와 조순향<sup>58)</sup>에 의하여 조사된 바 있고, 송일기는 광흥사판을 비롯하여 한 해 전(1561) 희방사에서 판각된 판본 등 15종을 三經合部本 계통이라 명명<sup>59)</sup>하기도 하였다. 이후로도 <부모은중경>의 여러 판본과 수록된 판화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동국대 소장본은 같은 해 판각된 <장수경>과 합철되어 있다. 전존본이 합철되어 전하는 경우 반드시 두 종류의 책이 동일한 시기에 판각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판본은 종이의 紙質이나 행자수와 글씨의 서체, 판심에 나타난 흑구나 판심제의 기입 양식 등 모든 형식이 꼭 일치하므로, 같은 시기에 새겨진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문의 분량은 모두 22장에 달하고, 권수면에는 변상도를 반 장 새겨두었다.

57) 윤병태,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55

58) 조순향, “韓國版 父母恩重經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76), 20.

59) 송일기, “父母恩重經 韓·中板本考,” 『한중인문학연구』 제5호(2000. 12), 191.

또한 권수면의 우측 하단에는 자료의 입수 경위가 기록된 ‘廣興寺寄贈’이라는 朱印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광흥사에서 직접 기증된 자료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소장 기관의 목록 상 행자수는 8행 10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인본은 8행 16자이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책의 말미에 밝힌 간행 관련 기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嘉靖四十一年壬戌六月日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 /  
志盤文恩重經長壽經初心誠文發心章自警三法語六端星 /  
宿祭文等經開板 /  
主上殿下壽萬歲 /  
王妃殿下壽齊年 /  
世子邸下壽千秋 /  
大施主 金石近 兩主 / 大施主 車仍叱孫 兩主 /  
大施主 金多勿沙里 兩主 / 施主 徐多勿沙里 兩主 /  
施主 吳孫 兩主 金非 保體 / 施主 崔銀山 兩主 / 施主 金命山 兩主 /  
李閑乞 兩主 / 金善伊 兩主 / 善非 兩主 / 劉苐之 兩主 /  
金談伊 兩主 / 柳加叱仇之 兩主 / 李亾叱石 兩主 / 金用南 兩主 /  
柳加叱孫 兩主 / 李七孫 兩主 / 金連宗 兩主 / 柳戒林 兩主 /  
金石只 兩主 / 良今 保體 / 冬至 兩主 / 柳莫同 兩主 /  
劉分合 兩主 / 鄭石伊 兩主 / 柳春丁 兩主 / 金石知 兩主 /  
卍信孫 兩主 / 他守 兩主 / 鄭莫孫 兩主 /  
幸禪 / 惠澄 / 熙衍 / 僅月 / 文獻 / 性月 / 六行 / 道雄 /  
信敬 / 暹云 / 道能 / 守一 / 玄聰 / 玉淳 / 月岑 / 崇贊 /  
海云 / 私兼 / 信悟 / 信豈 / 天觀 / 祖田 / 信珪 / 僅根 /  
玄隱 / 慈秀 / 祖悅 / 性豈 / 海云 / 覺心 / 道泉 / 惠元 /  
法連 / 性敏 / 幸順 / 僅敬 / 智玄 / 祖罔 / 道罔 / 祖淡 /  
信會 / 性天 / 道淳 / 性連 / 智淡 /  
刻手 性林 釋堅 / 鍊板 性學 / 供養主 靈僅 /  
供養大化主 惠元 / 布施化主 三印 /

### 3.2.9 명종 17년(1562) 刊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1책 (完)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鳩摩羅什 (後秦) 譯, 木板本

安東: 廣興寺, 明宗17[1562]刊

1冊[35張]: 圖, 四周單邊, 半郭 19.5 × 15.2 cm, 半葉 8行10字. 上下中黑口,

內向黑魚尾;

31.0 × 20.0 cm

刊記: 嘉靖四十一年壬戌(1562)六月 日...六端星宿祭文等開板

이 판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전술한 <은중경>과 합철되어 있다. 본문에 쓰여진 글자체와 판의 크기 및 행자수와 배열 등 모든 면에서 <은중경>과 일치하여 동시기 판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목록 상 제시된 행자수는 8행 10자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인본은 8행 16자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전존본의 상태로 책의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으며, 인본의 변란 밖 상단에 일부 훼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체 분량이 35장에 달하는 본문을 살펴보면, 찍힌 종이의 지질이나 자획의 마멸이 거의 없이 깨끗한 인쇄의 상태로 보아, 초쇄본 또는 판각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장수경>의 판본은 남권희(60)에 의하여 판본의 유입 및 고려본을 비롯한 한문 및 언해, 필사본 등 전존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 3.2.10 명종 18년(1563) 刊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1책 (完)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 志磐 著.

安東(慶北) : 廣興寺, 嘉靖 42年(1563).

1 冊 [90張]; [四周雙邊, 半郭 27.3×19.1 cm, 半葉 8行 15字. 上下內向黑魚尾 ;36.2×25.1 cm.]

[청구기호 : 古貴227.51-지반]

[版心題 : 水陸文]

이 판본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중국 남송의 승려 志磐이 찬술

60) 南權熙,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판본 연구,” 『國會圖書館報』 제38권 6호 (2001. 11), 82-100.

하였다 하여 흔히 <志盤文>으로 일컫어진다. 책의 서지 사항은 소장 기관의 목록이 약식으로 되어있어, 각괄호로 표기한 인본의 형태사항은 연구자가 실측하여 채기하였다. 소장본의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으며, 표지에 쓰인 제목은 ‘水陸文’으로 필사되어 있다. 책을 보관하였던 소장처 주기로 표지의 우측 하단에 ‘銀海寺’라 쓰여 있어서, 영남대로 옮겨오기 전에는 은혜사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에 나타나는 권수의 제목은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로 되어 있고, 판심의 제목은 ‘水陸文’으로 표지 서명과 같다. 수록된 내용은 수록 의식의 儀文, 진언, 偈文 등을 각 篇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하여 두었다. 개별 篇을 일일이 비교해 보지 않더라도, 새겨진 내용은 <普供養眞言>을 비롯하여 <安位供養篇>, <祝香供養篇> 등 당시 많은 간행이 이루어졌던 수록 의식서인 <중례문>과 유사하게 편성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의 전체 분량은 90장에 달하며, 본문의 마지막 장 제5행에 밝힌 권말의 제목은 대자로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卷’이라 관각되어 있다. 이로써 <수록문>과 <중례문>, <법계성범수록의궤>는 서로 혼용되어 쓰여질 만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전존본의 조사에서도 수록 내용 중 <중례문>과는 54편 가운데 40여편 이상이 중복으로 나타나, <중례문>을 저본으로 의식을 용이하게 치르도록 재편집하여 간행한 판본이 15세기 이후 우리나라에 유통된 <지반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의 제 90장에는 관각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 및 간행 관련 기록이 새겨져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嘉靖四十二年癸亥九月十五日慶尙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 /  
志盤文恩重經長壽初心誠文白經發心章三法語六端等經開板 /  
王妃殿下壽齊年 /  
主上殿下壽萬歲 /  
世子殿下壽千秋 /  
大施主 金願斤 兩主 / 大施主 金漆伊 兩主 / 大施主 李南乞 兩主 /  
大施主 車仍孫 兩主 / 吳孫 兩主 / 徐多勿沙里 兩主 /  
劉分合 兩主 / 姜仇哲 兩主 / 全石金 兩主 / 金於里 兩主 /  
政安逸戶長 柳淵兩 兩主 / 鄭莫孫 兩主 / 劉苒叱之 兩主 /

催銀竹 兩主 / 柳川汀 兩主 / 金多勿沙里 兩主 / 金僅山 兩主 /  
 黃多勿沙里 兩主 / 申无音金 兩主 / 姜難石 兩主 / 金億孫 兩主 /  
 柳莫同 兩主 / 金連宗 兩主 / 文玉万 兩主 / 長殯則 兩主 /  
 鄭石只 兩主 / 進今 兩主 / 白貴丁 兩主 / 金甘山 兩主 /  
 金命山 兩主 / 柳戒林 兩主 / 李達 兩主 / 金貴鶴 兩主 /  
 李七孫 兩主 / 金性仇之 兩主 / 姜七連 兩主 / 金善伊 兩主 /  
 誠斤伊 兩主 / 降問之 兩主 / 節非 保體 / 卍之 兩主 /  
 甘莊伊 兩主 / 吳仲孫 兩主 / 李吳松 兩主 / 金性同 兩主 /  
 卍信孫 兩主 / 秋金叱追里 兩主 /  
 大施主 釋熙 / 性倫 / 清云 / 先粹 / 禪哲 / 性修 / 道仁 / 性全 /  
 宗閑 / 玉熙 / 道憲 / 性天 / 釋堅 / 六行 / 戒行 / 惠能 / 玄隱 /  
 智彥 / 信軒 / 祖林 / 靈云 / 熙旭 / 元惠 / 法然 / 天云 / 印天 /  
 元隱 / 一安 / 熙達 / 玲印 / 惠仁 / 思元 / 性寶 / 仁修 / 尙云 /  
 戒先 / 惠根 / 熙泉 / 水晶 / 僅淳 / 性淳 / 智云 / 道仁 / 印罔 /  
 祖罔 / 信敬 / 道進 / 思惠 / 一禪 / 信安 / 尙珠 / 性了 / 智奈 /  
 性珠 / 尙心 / 靈機 / 惠清 / 性清 / 戒行 / 印熙 / 法贊 / 幸文 /  
 能惠 / 崇淡 / 道豈 / 一心 / 惠安 / 法宗 / 智暹 / 一云 / 正天 /  
 玉熙 / 天一 / 法林 / 處玉 / 幸淳 / 信悅 / 心一 / 性豈 / 禪生 /  
 敬林 / 靈正 / 善牛 / 信戒 / 釋崇 / 靈修 / 學悅 / 道尙 / 曇能 /  
 熙雄 / 孝淳 / 性熙 / 僅云 / 智海 / 學熙 / 印寄 / 道現 / 戒閑 /  
 玉寶 / 性熙 / 令寄 / 尙文 / 印草 / 法宗 / 儀海 / 靈菴 / 玄淮 /  
 學良 / 信連 / 道雄 / 敬林 / 月峯 / 性會 / 剋能 / 儀敬 / 性祖 /  
 天觀 / 文守 /  
 刻手 比丘 思湜 / 供養主 崇隱 性修 春禮 /  
 布施大化主 三印 / 供養大化主 惠元 /

### 3.2.11 선조 1년(1568) 刊 『仔夔刪補文』 영본 1권 1책 (권10)

仔夔刪補文 / [仔夔 撰 ; 西河 刪補], 木板本

鶴山 ; 廣興寺, 宣祖1(1568).

零本 1冊 (20張) : 四周雙邊 半郭 22.3 × 17.5 cm, 無界, 8行15字,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 ; 30.4 × 21.5 cm.

刊記 : 隆慶二年甲辰(1568)四月日 慶尙道鶴山廣興寺開板

所藏 : 권제10

이 판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광흥사판으로 알려진 전존본은 완질을 갖추지 못한 권제10의 영본 1책만이 국내 몇몇 소장처에 남아 있다. 책의 본문은 불교 의식을 다룬 중국 남송시대의 승려 仔夔가 찬술한 『仔夔集』에, 중국 승려 西河가 刪補한 『仔夔刪補文』을 다시 우리나라의 僧團에 맞게 편성한 내용이다. 본문의 단락을 구분하는 소제목이 주로 偈文, 呪文, 眞言, 請文, 儀文 등으로 일관되어, 불교에서 의식에 참고하였던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재편하였다는 점은 본문의 제6장 뒷면에 ‘一心奉請朝鮮境內金剛山中自古至 / 今明心見性 …’라는 문구 외에 咸吉道, 慶尙道, 平安道 외의 명산 대찰이 직접 회자되었던 사실에서 드러난다. 또한 제14장 앞면의 <普召請眞言> 내용에서도 ‘一心奉請太祖康獻大王靈駕來臨法 / …’ 등 돌아가신 태조에서 太宗, 昭憲王后를 대상으로 법회에 임하는 형식의 진언 내용을 반복하여 다루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존본은 표지를 비롯하여 판심 부분 쪽에 일부 훼손이 발생하였으나, 개장되지 않았다. 본문의 인쇄상태는 8행 15자의 대자로 새긴 본문을 비롯하여, 작은 글씨로 새긴 권말의 간행 기록까지 선명하게 판독된다. 종이 지질과 인출 상태로 보아, 판각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찍어내었음을 알 수 있다.

관심에는 ‘仔十 一’과 같이 <仔夔文>의 권차와 장차를 일관되게 표기하였다. 본문의 전체 분량은 20장에 달하고, 마지막 20장의 제2면에는 간행 관련 기록을 새겨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隆慶二年戊辰四月日慶尙道鶴山廣興寺開板 /  
供養大施主 尹末貞 兩主 / 供養大施主 小叱今 兩主 /  
板大施主 張六同 兩主 / 布施大施主 李巨乙金 兩主 / 仲非 兩主 /  
墨施主 尹价同 兩主 / 趙億斤 兩主 / 吳一同 兩主 /  
崔石 兩主 / 趙士元 兩主 / 柳川汀 兩主 / 金石近 兩主 /  
今修 / 空岑 / 敬熙 / 法連 / 僮惠 / 祖澄 / 僮教 /  
智暹 / 性林 /  
刻手秩 思湜 釋堅 / 鍊板 雲惠 /  
供養主 信詮 道行 / 幹善道人 尙澄 /

### 3.2.12 선조 3년(1570) 刊 『金剛般若波羅密經變相』 1책 (完)

金剛般若波羅密經變相, [편자미상], 木板本

安東 鶴駕山 :廣興寺, 宣祖 3(1570)

24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20.3 × 21.6 cm, 30.5 × 23.6 cm

刊記: 隆慶四年庚午(1570)六月初二日慶尙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刊板

청구기호: 古 1743-54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책의 표지에는 큰 글자로 ‘金’이라 써서, 서명을 암시하고 있다. 이 판은 권수면이나 판심에 새겨진 제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본문이 시작되는 제1장에 ‘金剛般若波羅密經變相’이라고 판각되어 있어서, 서명으로 간주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구는 이 책의 본문이 <금강경>의 내용을 변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려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광흥사판의 본문은 모두 24장으로 제1장은 변상도를 전체에 걸쳐 새겼다. 나머지 제2장부터 제23장까지는 상하 2단으로 구분하여 상단 또는 상하단 모두 변상도와 본문을 판각하였다. 책의 본문 시작은 <金剛經啓請>을 비롯하여, <진언>과 <발원문>을 두고, 연이어 제5장부터는 <法會因由分 第一>에서 <應化非眞分 第三十二>까지의 <금강경>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변상도를 새긴 부분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어김없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새겨두었고,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般若眞言>과 <心陀羅尼>로 내용을 마무리 하고 있다.

이러한 광흥사판의 본문 및 그 형식에서 특기할 사실은 판심 부분에 魚尾나 제목 등 어떠한 내용도 새겨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장차는 음각 또는 양각으로 ‘一’, ‘二’, ‘三’으로 순서에 맞게 새겼으나, 그 위치도 일관되지 않아 판심 부분, 우측 상단, 좌측 하단 등 각수가 임의로 판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의 마지막 장인 제24장은 장차를 새기지 않았고, 간행관련 기록을 밝혀 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隆慶四年庚午六月初二日慶尙 / 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刊板 /  
奉祝 /  
主上殿下壽萬歲 /  
王妃殿下壽齊年 /  
大興大妃殿下壽萬歲 /  
元德 兩主 / 板大施主 趙根 兩主 /  
大功德主 性岑 承印 一云 智暹 信悟 惠元 智云 心印 惠淳 玉仁 僅元 佛仁 /  
天瑞 芑天 玉暹 祖己 玄錕 靈元 性岑 思牧 玄隱 印宗 /  
九朴只 兩主 / 林守哲 兩主 / 姜悟南 兩主 / 金善伊 兩主 /  
金石金 兩主 / 林大 兩主 / 張莫斤 兩主 / 吾一同 兩主 /  
金漠 兩主 / 姜貴樞 兩主 / 李愛貞 兩主 / 文億守 兩主 /  
貴全 兩主 / 黃守延 兩主 / 柳川汀 兩主 / 李金 兩主 /  
金薦同 兩主 / 鄭勤難 兩主 / 崔順僅 兩主 / 申德守 兩主 /  
崔萬 兩主 / 莫失 億分 /  
長石崇 兩主 / 鍊板 元悟 / 供養主 性倫 / 刻手 釋堅 貴朴 / 化主 戒熙 /

### 3.2.13 선조 9년(1576) 刊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책 (完)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大愚(朝鮮) 集述, 木板本.

安東: 廣興寺, [宣祖9(1576)]

1冊(42張): 四周單邊, 半郭 20.2 × 17.0cm, 半葉 8行16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內向黑魚尾; 31.5 × 22.0 cm

表題: 豫修文

刊記: 萬曆四年丙子(1576)五月 日慶尙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開板

이 판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본문의 내용은 제1장 通敍因由篇에서 예수재의 시원을 밝히고, 이로 인한 중생들의 차별 없는 극락왕생의 길을 명기하였다. 연이어 嚴淨八方篇에서는 재를 열어 부처님이 가호하여 기도를 따라 감응할 것을 빌고 있다. 이와 같이 총 31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편마다 의식을 행하는 의의를 먼저 말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기록하고 있다.

본문의 제42장까지는 <豫修齋儀文>이 수록되어 있고, 제43장부터는 12장에 걸쳐 <預修薦王通儀>가 수록되어 있다. 이 부분의 판심 제목은 앞부분이 '預修

文’으로 새긴 것과 달리 ‘預修通’으로 판각하였다. 본문의 시작에 앞서 승려 六和가 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식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豫修齋儀文>과 일맥상통한다. 책의 부록 성격으로 합철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전존하는 판본에서도 단독으로 간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預修薦王通儀』의 본문 분량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상기 판본인 <豫修齋儀文>과 유사하므로, 부록 형식으로 합철되어 유통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책의 권말에는 간행 기록 및 간행 참여자들의 명단을 새겨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萬曆四年丙子五月日慶尙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開板 /  
主上殿下壽萬歲 / 王妃殿下壽齊年 /  
大施主 戶長 孫世 兩主 / 布施大施主 文玉万 兩主 /  
鄭石 兩主 / 崔弼 兩主 / 金命長 兩主 / 徐必孫 兩主 / 金莫同 兩主 /  
柳万世 兩主 / 金元亨 兩主 / 孫彥函 兩主 / 李石連 兩主 / 高玉同 /  
金訥叱孫 兩主 / 宋石 兩主 / 于阿之 兩主 / 南億松 兩主 / 朴石連 兩主 /  
李七孫 兩主 / 孫彥浩 兩主 / 南命守 兩主 / 天玉伊 / 朴今伊 /  
信珪 / 戒崇 / 雪雄 / 道熙 / 惠一 / 海登 / 靈俊 / 天寶 /  
性祖 / 雙云 / 信悟 / 性崑 / 智暹 / 智仁 / 海云 / 天一 /  
太玄 / 云士 / 僅浩 / 思俊 / 覺林 / 天熙 / 玉能 / 宗和 /  
靈寄 / 道元 / 祖熙 / 學正 / 信宗 / 惠能 / 僅俊 / 熙敏 /  
性修 / 壇玉 / 沘禪 / 信稚 / 太俊 / 戒淳 / 玉明 / 學明 /  
海敬 / 玄谷 / 學輪 / 智俊 / 靈澄 / 崇隱 / 靈還 / 靈己 /  
靈修 / 金石乙伊 兩主 /  
刻手 釋堅 / 鍊板 圓悟 天熙 / 供養主 性修 / 幹善道人 太尙 /

### 3.2.14 숙종 4년(1678) 刊 『妙法蓮華經』 영본 1권 1책 (缺)

妙法蓮華經 / 戒環(宋) 解 ; 鳩摩羅什(印) 奉詔譯, 木板本.

版心題: 法華經

表題 : 蓮華經

安東 : 廣興寺 , 康熙17(1678).

零本1冊 : 變相圖, 四周雙邊 半廓 21.3 × 16.0 cm, 有界, 8行13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2 × 21.6 cm.

刊記 : 康熙十七戊午(1678)四月日慶尙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開刊

이 판본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이다. 권제1의 영본 1책으로 본문은 <법화경>의 가장 핵심 사상을 다룬 <序品>과 <方便品>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판의 형식은 앞서 중종 22년(1527)에 광흥사에서 간행된 『妙法蓮華經』과 거의 일치하고, 변상도 양식과 앞부분에 <妙法蓮華經弘傳序>를 둔 것도 동일하다. 다만, 두 판본의 대조 결과 같은 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앞서 사찰에서 <법화경>이 간행된 뒤 시간이 오래 지나 판의 마멸이나 사찰의 필요에 의하여 이전 판을 토대로 재차 사찰에서 간역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의 분량은 37장에 달하고, 제38장에는 간행 관련 기록을 새겨두었다. 이 판은 광흥사에서 새겨진 다른 경전들과 달리, 간행 기록 부분 또한 계선을 두고 본문의 크기와 동일한 양식인 8행 12-13자의 격식을 갖춘 大字로 새겼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康熙十七戊午四月日慶尙 / 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開刊 /  
供養大施主通政大夫安雪堅兩主 / 供養施主通政大夫金石山兩主 /  
供養施主通政大夫權貴同兩主 / 板施主金勝男兩主 /  
板施主金從金兩主 / 閑順卜兩主 /  
斗閑 比丘 / 戒和 比丘 / 妙閉 比丘 / 石信乞 保體 /  
李春龍 兩主 / 緣化秩 雪雲 比丘 / 別座 雪性 比丘 / 幹善道人 太顛 /

## 4. 간행 불서의 분석

### 4.1 간행 동기

사찰의 제반 물력과 인력이 동원되는 불서의 개관 업무는 다양한 목적에서 비롯될 수 있다. 예컨대, 사찰의 위상이나 명분을 세우기 위한 출판, 또는 판각에

참여한 신도들을 축원하거나 죽은 이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한 것, 사찰의 업무와 의식에 참고하거나 승려들의 독송 등 실무적인 필요성에 따른 개판 등 여러 범주로 구분되기도 한다.

광흥사에서 새겨진 일련의 불서들을 간행 동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본래 목적은 여느 사찰과 마찬가지로 사찰의 수요나 필요성이라는 측면이 전제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광흥사 판본들의 권말에는 이러한 실제적인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개별 서적마다 책의 간행 동기를 별도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광흥사판 불서의 간행 동기

연번	구분	종수	비율	경전명
1	주상, 왕비, 세자 또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판각	9	39.1%	妙法蓮華經(1527),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38),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38), 月印釋譜(1542),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2),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1562),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63), 金剛般若波羅密經(1570),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576)
2	사찰 신도 또는 시주자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기 위한 판각	1	4.3%	佛說阿彌陀經(1525)
3	불도 및 불학자들의 수행 및 학습을 위한 판각	1	4.3%	金剛般若波羅密經(1530)
4	未詳	12	52.1%	蒙山和尚六道普說(1539, 기록 없음), 仔夔刪補文(1568, 기록 없음), 妙法蓮華經(1678, 기록 없음), 인본이 전하지 않는 9종
합계		23	100%	.

## 4.2 간행 시기

광흥사판 불서의 간행 시기는 16세기 21종(91.3%), 17세기 1종(4.3%), 18세기 1종(4.3%)으로 대부분의 경전이 16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이 중에서도

명종 17년(1562) 한 해에만 7종의 경전을 판각되었으므로, 사찰의 대대적인 간경 불사로 특기할 만하다.

더불어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인 광흥사의 경전 간행 사업은 사찰의 세력 및 그 興衰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광흥사는 조선 초기부터 16세기까지는 왕실의 후원 하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호불 군주였던 세조를 비롯한 중앙의 고위 관료들이 경전을 간행하고, 사찰에 안치하는 등 교류의 정황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는 임란 전까지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찰 또한 여러 고승들이 왕래하며 사찰에서 銅鐘을 제작하는 등 16세기 말까지는 사세와 寺格이 고양되었던 시점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이와 같이 안정된 기반 하에 제반 물력과 인력이 소요되었던 불경 간행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의 간본이 극히 阜薄되었던 것은 전란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 당시부터 20세기 까지 여러 차례 발생하였던 대규모 실화와 그에 따른 사찰의 훼손 및 중창 불사와도 전혀 무관치 않아 보인다.

### 4.3 주제별 분포

개별 사찰에서 판각된 불경의 주제별 분포를 일별하면, 해당 사찰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선 여러 연구 사례에서 이루어진 우리나라 사찰의 불경 판각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간행 서적만으로 사찰의 종파나 성격을 추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경우 특정 사찰을 막론하더라도, 제반 사찰에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다양한 분야의 경전을 간행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출판에는 사찰의 전통성이나 종파보다는 범불교적인 테두리에서 실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이 더 우선시 되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추정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찰에서 간행된 서책의 주제별 분포를 일람하는 것은 당시 해당 사찰의 성격이나 출판 동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를 개관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광흥사판 불서의 주제별 분포

부별	유별	종수	비율	경전명
經典部	般若經類	3종	13.0%	金剛般若波羅密經(1530), 金剛般若波羅密經(1570), 金剛般若波羅密經(1739)
	法華經類	3종	13.0%	妙法蓮華經(1527), 妙法蓮華經(1572), 妙法蓮華經(1678)
	寶積經類	1종	4.3%	佛說阿彌陀經(1525)
	經集類	1종	4.3%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2)
	密教經類	1종	4.3%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1562)
宗義部	禪宗類	4종	17.4%	蒙山和尚六道普說(1539), 誠初心學人文(1562), 三法語(1562), 六祖大師法寶壇經(1562)
	禮懺類	9종	39.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38),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68),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38),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63),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63), 志盤文(1562), 星宿祭文(1562), 仔夔刪補文(1568), 預修十往生七齋儀纂要(1576)
史傳部	傳記類	1종	4.3%	月印釋譜(1542)
합계	.	23종	100%	.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광흥사에서 간행된 불서는 宗義部 禮懺類의 서적들이 가장 많이 찍혀졌다. 이러한 예참류 중에서는 단연 불교 의식서가 눈에 띄게 많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진술한 바와 같이, 사찰의 의식이나 재를 올리기 위한 실용성의 관점에서 도모되었던 불서 개관 사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나 지역을 불문하고 다른 사찰의 경우, 수록 의식이나 망자를 위한 齋 의식서는 임란 직후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광흥사에서는 이 시기보다 앞서 이 분야 책들이 꾸준히 간행되었으므로 경내 의식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찰 비치용 판각 사례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禮懺類의 뒤를 이어 禪宗類와 經典部의 기본 경전이 사찰의 강의 목적이나 수행 시 필요에 따라 비중 있게 간행되었던 것은, 당시 사찰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 4.4 판의 형식

### 4.4.1 邊欄 및 行·字數

앞선 연구들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임란 전 간행된 불서의 상당 부분은 四周單邊의 양식으로 판각되었다. 광흥사판 불서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四周單邊이 11종(47.8%)으로 四周雙邊 3종(13.0%)에 비하여 우세하다. 그 밖에 인본이 전하지 않는 9종(39.1%)은 판의 양식을 알 수 없다.

행자수는 8행 16자본(30.4%)이 선호되었으나, 이는 번각이나 중간 시 저본을 그대로 따르거나 독자적인 필사에 따라 변개될 수 있으므로, 판본의 경향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 4.4.2 魚尾

관심에 나타나는 魚尾의 형태는 번각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반드시 원본의 형태를 준용하지는 않는다.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기는 각수의 재량이 반영되는 영역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원본이 黑魚尾로 일관된 경우라도 후대에 새기면서 각수의 이름을 넣기도 하고, 문양을 새겨 넣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진이나 간행 시기에 따른 魚尾의 일반화된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드러나는 광흥사판 불서의 어미 형태를 살펴보면, 上下內向黑魚尾가 11종(47.8%)으로 가장 우세하고, 有紋魚尾 1종(4.3%), 無魚尾 2종(8.7%), 기타 인본이 전하지 않는 9종(39.1%)이다.

### 4.4.3 板口 및 界線

광흥사판 불서의 판구의 형태별 분포는 上下 大黑口가 『佛說阿彌陀經』(1525)

를 비롯하여 9종(39.1%)으로, 上下 白口 5종(21.7%)에 비하여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有界本과 無界本은 각각 7종(30.4%)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板口와 界線 역시 판하분을 바탕으로 한 번각일 경우, 대개 저본에 충실하게 판각하였다. 또한 임란 전의 간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흥사판에서는 주로 大黑口本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界線을 새기는 여부는 경전 판각 시 작업의 효율성이라 면과 직결되어 있었다.

## 4.5 간행 참여자

### 4.5.1 刻手

불경의 간행에 있어서 실제 판을 새기는 업무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광흥사판 불서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주로 1명-3명이 담당하였다. 이 가운데 『蒙山和尚六道普說』(1539)과 『妙法蓮華經』(1678)의 경우 각수 이름을 수록하지 않았다. 또한 참여한 각수의 명단은 권말의 간행 참여자 명단에 수록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판에서는 어미나 판심 부분에 略記한 사례도 있다.

인본이 남아 있는 광흥사판 14종 불서의 경전별 각수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광흥사판 불서의 각수 현황

연번	서명	표기	각수명
1	『佛說阿彌陀經』(1525)	刻	信草
2	『妙法蓮華經』(1527)	刻	思玄, 惠闇, 張連同
3	『金剛般若波羅密經』(1530)	鉸梓秩	法崇, 僅四, 敍雨
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38)	刻刀秩	靈崇
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38)	刻刀秩	靈崇
6	『蒙山和尚六道普說』(1539)	刻手	.
7	『月印釋譜』(1542)	刻手	慎初

연번	서명	표기	각수명
8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2)	刻手	性林, 釋堅
9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1562)	刻手	性林, 釋堅
10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63)	刻手	思湜
11	『仔夔刪補文』(1568)	刻手秩	思湜, 釋堅
12	『金剛般若波羅密經』(1570)	刻手	釋堅, 貴朴
13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576)	刻手	釋堅
14	『妙法蓮華經』(1678)	.	.

#### 4.5.2 化主

화주는 불경 간행 시 신도들을 勸化하고, 간행 사업을 주도하였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幹善, 化士, 緣化, 幹緣, 幹化 등 다양하게 불리어졌다. 광흥사판 불서의 化主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광흥사판 불서의 化主 현황

연번	서명	표기	인물명
1	『佛說阿彌陀經』(1525)	緣化	天觀, 宿能
2	『妙法蓮華經』(1527)	大化主	天觀, 宿能
3	『金剛般若波羅密經』(1530)	勸化	六清, 慈秀
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38)	幹善	慎初
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38)	幹善	慎初
6	『蒙山和尚六道普說』(1539)	幹善	慎初
7	『月印釋譜』(1542)	化主	雪云
8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2)	供養大化主	惠元, 三印
9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1562)	"	惠元, 三印
10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63)	"	惠元, 三印
11	『仔夔刪補文』(1568)	幹善道人	尙澄
12	『金剛般若波羅密經』(1570)	化主	戒熙
13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576)	幹善道人	太尙
14	『妙法蓮華經』(1678)	幹善道人	太顛

이상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化主는 주로 1-2명이 맡았으며, 이들의 신분은 한결같이 승려로 이루어졌다. 사찰의 신도를 통솔하고, 간행 사업을 주도하였던 위치를 감안하면, 그 신분이 승려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기의 인물 중 승려 愼初는 3종의 경전에서 幹善을 담당하였고, 『月印釋譜』(1542)의 각수 역을 맡기도 하여 판각 기술을 가진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天觀과 宿能 또한 2종의 경전 간행 업무를 주도하였고, 惠元과 三印은 3종의 판각 업무를 주관하였다.

### 4.5.3 供養主

공양주는 불경 간행의 工役 시 시주자 및 간행 참여자들의 먹거리를 담당하였던 직책이다. 그리하여 그 역할에 대한 표기는 供養主 뿐 아니라 飯頭 또는 熟頭, 供司, 炊飯 등으로 명시되기도 하였다.

광흥사판 불서의 供養主는 주로 1-3명이 맡았으며, 명단을 밝히지 않은 경전 도 2종 있다. 이들은 신분은 주로 사찰에 소속된 승려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판본에서 밝힌 공양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광흥사판 불서의 供養主 현황

연번	서명	표기	인물명
1	『佛說阿彌陀經』(1525)	·	·
2	『妙法蓮華經』(1527)	·	·
3	『金剛般若波羅密經』(1530)	供養主	學心, 熙衍
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38)	供養主	信云, 性文, 根耕
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38)	供養主	信云, 性文, 根耕
6	『蒙山和尚六道普說』(1539)	供養主	性文, 根問
7	『月印釋譜』(1542)	供養主	覺洽
8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2)	供養主	靈僅
9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1562)	供養主	靈僅
10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63)	供養主	崇隱, 性修, 春禮
11	『仔夔刪補文』(1568)	供養主	信詮, 道行

연번	서명	표기	인물명
12	『金剛般若波羅密經』(1570)	供養主	性倫
13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576)	供養主	性修
14	『妙法蓮華經』(1678)	[別座]	雪性

#### 4.5.4 鍊板

鍊板은 일차적으로 벌목된 나무에서 책판의 형태를 갖추도록 재단하는 업무 또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에 그 표기는 鍊板이 주로 사용되었고, 일부에서는 大木이나 大手로 표기된 사례도 있다.

광흥사판 불서의 鍊板者는 주로 1-2명이 담당하였으며, 이들 중 性學은 2종, 熙云은 4종의 경전 간행 시 경관을 재단하였다. 연관 또한 木工의 영역으로 각수 정도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했던 분야로 여겨진다. 각 경전별 연관자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광흥사판 불서의 鍊板者 현황

연번	서명	표기	인물명
1	『佛說阿彌陀經』(1525)	.	.
2	『妙法蓮華經』(1527)	.	.
3	『金剛般若波羅密經』(1530)	鍊板	祖根
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38)	鍊板	熙云
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38)	鍊板	熙云
6	『蒙山和尚六道普說』(1539)	鍊板	熙云
7	『月印釋譜』(1542)	鍊板	熙云, 達修
8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2)	鍊板	性學
9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1562)	鍊板	性學
10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63)	.	.
11	『仔變刪補文』(1568)	鍊板	雲惠
12	『金剛般若波羅密經』(1570)	鍊板	元悟
13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576)	鍊板	圓悟, 天熙
14	『妙法蓮華經』(1678)	.	.

#### 4.5.5 施主

시주는 불경 간역 시 재화와 물력을 보태었으며, 그 寡少에 따라 大施主 또는 小施主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전존하는 판본에 따르면, 시주하는 영역에 따라 鍊板施主, 供養施主, 布施施主, 板施主 등으로 나누어 기재된 사례도 있다.

한편, 불경에 나타난 시주 명단은 일반적으로 부부의 이름을 함께 올리고, 살아 있는 사람의 경우 부부일 때는 兩主, 한 명일 경우 保體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죽은 사람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施資하지는 않았겠으나, 靈駕라는 호칭으로 집안이나 후손에서 재화를 보태고 망자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광흥사판 불서의 경우도 이러한 시주에는 일반인과 승려들이 고루 섞여 있었고, 참여한 인물들은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어서는 경우도 흔하였다. 각 경전별 시주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광흥사판 불서의 施主者 현황

연번	서명	표기	인원수
1	『佛說阿彌陀經』(1525)	大施主	일반인 6명
2	『妙法蓮華經』(1527)	大施主, 施主	일반인 78명, 승려 5명
3	『金剛般若波羅密經』(1530)	大施主	일반인 67명, 승려 28명
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38)	大施主	일반인 75명, 승려 80명
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38)	大施主	일반인 75명, 승려 80명
6	『蒙山和尚六道普說』(1539)	大施主	일반인 48명, 승려 10명
7	『月印釋譜』(1542)	大施主	일반인 152명, 승려 7명
8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2)	大施主	일반인 60명, 승려 36명
9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1562)	大施主	일반인 60명, 승려 36명
10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63)	大施主	일반인 94명, 승려 109명
11	『仔夔刪補文』(1568)	板大施主, 布施大施主 供養大施主	일반인 24명, 승려 9명
12	『金剛般若波羅密經』(1570)	大施主	일반인 50명, 승려 22명
13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576)	大施主	일반인 43명, 승려 49명
14	『妙法蓮華經』(1678)	板施主, 供養施主	일반인 15명, 승려 3명

## 5. 맺음말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안동 지역 명찰 가운데 하나였던 광흥사의 연혁 및 역사에 대하여 소급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사찰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출판 활동 및 서적의 간행 정황을 사료를 통하여 개관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판본 및 관련 기록을 조사하여 사찰 출판의 면모를 정리하였고, 인본에 나타나는 간행 관련 기록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 광흥사는 초창기 창건에 관한 명확한 사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인근의 鳳停寺와 더불어 신라시대 義湘(625-702)이 활동하던 시기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러 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듭하기도 하였고, 대찰로서의 면모를 갖춘 시점은 조선 초기로 추정된다. 사찰은 그 뒤 세조 조를 기점으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세를 확장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조선 후기까지도 면면히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광흥사는 17세기 후반 사찰의 소실 및 중창에 관한 기록이 시작으로, 19세기를 거치면서 1950년대까지도 유독 화재와 그에 따른 건물의 중수 기록이 많이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와중에도 사찰에서는 사세의 興衰에 부합하여 출판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시기는 16세기에 집중되었다. 이후 간헐적으로 간행 사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전존하는 판본은 일부에 불과하였고, 이와 같은 출판 활동은 19세기 유가 문집 간행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광흥사에서 간행된 불경 판본은 모두 23종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21종은 16세기에 간행되었고, 기록만 전할 뿐 인본이 남아 있지 않은 판이 9종이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14종의 판본이 국내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었으며, 결국 이 판본들의 기록을 조사하여 당시 사찰 출판의 모습 및 정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존하는 14종의 인본 가운데 9종은 임금이나 왕비 및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제외한 일부 판본은 사찰 신도나 시주자들의 소원 성취를 위한 판각 또는 佛徒 및 佛學者들의 학습을 위한 개관 사업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사찰에서 판각된 경전의 주제는 불교 의식서로 대변되는 예참류 서적이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선종류와 <금강경>, <법화경> 등 일반 경전류들이 판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새겨진 경판의 형식을 살펴보면, 匡郭의 경우 14종 가운데 11종이 四周單邊의 형식으로 판각되었고, 3종은 四周雙邊의 양식이었다. 판심의 魚尾는 11종이 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었고, 有紋魚尾 1종과 無魚尾 2종으로 나타났다. 板口는 上下 大黑口本이 9종으로 白口本 5종에 비하여 많았고, 전존본 중 앞선 판의 번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판본은 활자본을 번각한 『金剛般若波羅密經』을 비롯한 6종이었다.

마지막으로 간행 참여자의 경우 각수는 일반인과 승려가 함께 가담하였고, 주로 1-3명이 분담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 각수는 5종 이상의 경전을 판각하는 등 사찰의 간행 활동에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간행 참여자들의 활발한 참여 사례는 化主나 供養主, 鍊板 등 다른 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번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신분들이 간경 사업에 왕성하게 참여하였던 정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불경 간행에 참여한 일반 시주자들 뿐 아니라, 사찰의 승려들 중 광흥사에 오랜 기간 머물며 사찰의 간경 사업을 주도하였던 일부 인물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 [原典]

『慶尙道邑誌』.

『廣興寺重建事蹟』.

『安東府邑誌』.

『永嘉誌』.

『禮安郡邑誌』.

「雨臯集」.  
「諸經目錄」.

[단행본]

- 江田俊雄. 「朝鮮佛教史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77.
- 鎌田茂雄 著. 「朝鮮佛教史」.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87.
- 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慶尙道七百年史」. 대구: 同會, 1999.
- 慶尙北道史 編纂委員會 編. 「慶尙北道史 (上·中·下)」. 대구: 同會, 1983.
- 고영섭 지음. 「한국불교사연구」. 광주: 한국학술정보, 2012.
- 국립문화재연구소 編. 「불교민속문헌해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0.
- 김갑주 저.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서울: 景仁文化社, 2007.
- 김용선 지음. 「고려금석문연구: 돌에 새겨진 사회사」. 서울: 일조각, 2004.
- 김용선 편저. 「고려묘지명집성」.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 金澤庄三郎 編. 「朝鮮書籍目錄」. 서울: 成進文化社, 1976.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編.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 리철화. 「조선출판문화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95.
- 문화재청 編. 「한국의 사찰문화재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전: 문화재청, 2007.
-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사찰문화연구원 편. 「대구·경북의 전통사찰 III」.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2001.
- 釋尾春苒 編. 「朝鮮古書目錄」.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 沈喆俊 著. 「日本訪書志」.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安啓賢 著. 「韓國佛教思想史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3.
- 안동군 편. 「내고장 전통 가꾸기」. 안동: 안동군, 1985.

- 안동군 編. 『安東民俗資料誌』. 안동: 안동군, 1981.
- 安東郡誌編纂所 編. 『安東大觀』. 안동: 同編纂所, 1961.
- 안동문화원 譯. 『(國譯)永嘉誌·宣城誌』. 안동: 同院, 2001.
- 안동문화원 編. 『(역주)안동부읍지·예안군읍지』. 안동: 同院, 2012.
- 안동문화원 編. 『안동군 지정문화재편람』. 안동: 同院, 1994.
- 안동민속박물관 편. 『안동의 碑石』. 안동: 안동민속박물관, 1995.
- 안동민속박물관 편. 『安東의 寺刹』. 안동: 안동민속박물관, 1998.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李箕永 著. 『韓國佛教研究』.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83.
- 李能和 編. 『(역주)韓國佛教通史』.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이재창 저. 『韓國佛教 寺院經濟研究』. 서울: 불교시대사, 1993.
- 李智冠 著.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서울: 伽山文庫, 1993.
- 李智冠 編.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 前間恭作. 『古鮮冊譜』 第一冊-第三冊. 東京: 東洋文庫, 1944.
-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영인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 朝鮮總督府 編. 『朝鮮寺刹史料』. 東京: 國書刊行會, 1971.
- 蔡尙植 著.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3.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2·3)』. 안동: 同院, 2007.
- 한상길 지음.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許興植 著. 『高麗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6.
-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 黃壽永 編著. 『한국금석유문』. 서울: 一志社, 1994.
- 黒田亮 著. 『朝鮮舊書考』. 東京: 岩波書店, 1940.

[논문]

-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金永善. “高峰和尚禪要 板本考.” 『書誌學研究』 제14집(1997. 12). 161-212.
- 南權熙.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판본 연구.” 『國會圖書館報』 제38권 6호(2001. 11). 82-100.
-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教 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 (1999. 2). 351-456.
- 南權熙. “慶州에서 刊行된 書籍研究.” 『新羅文化』 제19집(2001. 8). 195-226.
- 南權熙. “東興備攷의 사찰 기록 연구.” 『嶺南學』 제2호(2002. 6). 97-142.
- 배현숙.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書誌學研究』 제5·6집 합집(1990. 12). 161-181.
- 배현숙. “蔚州 雲興寺의 불경간행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44집(2009. 12). 37-83.
- 배현숙. “朝鮮時代의 寺刹文庫에 대하여.” 『圖書館學報』 제4집(1983. 10). 145-160.
- 송일기, 김은진. “몽산 덕이의 『蒙山和尚六道普說』의 판본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207-233.
- 송일기. “父母恩重經 韓·中板本考.” 『한중인문학연구』 제5호(2000. 12). 179-215.
- 옥영정.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族譜, 童蒙書, 地誌, 日記類 등 책판의 성격과 가치.” 『大東文化研究』 제70집(2010. 6). 45-95.
- 유탉일. “嶺南地方刊行 有刊記 佛書 目錄.” 『鄉土文化』 3집(1970. 11). 267-302.
- 유탉일. “嶺南地方刊行 典籍의 통계적 고찰.” 『論文集』 2집(1972. 2). 1-26.
- 윤동원. “安東地方 寺刹刊行 書籍考.” 『古印刷文化』 16집(2009. 12). 39-57.
- 李龜烈. “광복 직후의 문화재 사건들.” 『文化史學』 제27호(2007. 6). 1089-1114.
- 鄭王根. “조선시대 『妙法蓮華經』의 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 秦弘燮. “廣興寺 銅鐘.” 『考古美術』 제7권 제11호(1966. 11). 251.
- 탁효정. “조선시대 王室願堂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허홍식. “나옹선사의 생애와 사상.” 『나옹선사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1. 5).  
11-56.

허홍식. “한국 불교서의 간행현황과 방향.” 『書誌學報』 제8호(1992. 12). 61-73.

### [참고 웹사이트]

『高麗史』: <<http://www.koreaa2z.com/>>.

『內閣日曆』: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NGK](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NGK)>.

『三國史記』: <<http://www.koreaa2z.com/>>.

『三國遺事』: <<http://www.koreaa2z.com/>>.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新增東國輿地勝覽』: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日省錄』: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ILS](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ILS)>.

『朝鮮王朝實錄』: <<http://www.koreaa2z.com/>>.

『增補文獻備考』: <<http://www.krpia.co.kr/pcontent/>>.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동국대학교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http://buddha.dongguk.edu/>>.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